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 (중등)

전염병
ED
애
다
가
뉴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발간사

팬데믹 시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등교 중지와 원격수업 전환이라는, 평소 같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급작스러운 교수학습 방식 변화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학교 현장에서 이런 세계적 상황을 수업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이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일과 삶의 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근본적 목적과 가치를 묻게 되고 학교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더 느끼며,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태교육원은 다년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수학습 가이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와 연구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한 주제가 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수업모듈 12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이 단순히 보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권, 경제 불평등, 각종 차별,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환경과 생태계, 글로벌 거버넌스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참여중심 수업을 통해 타인의 상황에 공감해보며, 편협한 자국이기주의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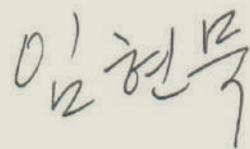
이 가이드가 다른 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변혁적 교수학습법(transformative pedagogy)을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가이드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수업에서 직접 실천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가 팬데믹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많은 선생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에 적용하면서 느낀 점이나 다른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아태교육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가이드 개정판이나 저희가 발간하는 다른 교육자료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학사일정 중에도 취지에 공감하고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집필과 연구에 매진해 주신 김화선, 박재준, 양철진, 최윤경, 최인선, 하승천 선생님과 감수를 위해 애써주신 김경숙, 이경원 교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임 현 목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normal)’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 세계시민성을 증진하는 것은 이들 도전에 대응하는 유네스코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실천)적 능력에 중점을 둔 세계시민교육은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타인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불의에 맞서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¹⁾

-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 담론의 변화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은 주로 국가 발전의 수단 및 개인의 잠재력 실현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9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선언,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교육 2030’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제사회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노력에서 이제는 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합한(relevant)’ 내용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²⁾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핵심개념 및 주제영역

세계시민교육은 지역, 국가 및 전 지구적 과제들을 사회·경제·문화·정치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 국가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지만, 유네스코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개념 영역을 강조합니다.

1) 아태교육원, 아태교육원 20년사 - 세계 시민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배우다, 2020

2)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2018

- ①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 ②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 ③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에서 소개하는 학습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틀로서, 아래와 같은 9개의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①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②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③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과 권력의 역학관계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④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⑤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⑥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 ⑦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⑧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⑨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수학습원리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법은 가치와 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발전, 인권, 문화다양성, 포용성, 사회·경제적 정의, 성평등, 지속가능성과 같은 삶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류의 안녕을 존중하는 태도함양을 지향합니다. 이는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분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문제만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는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자들이 비판적 관점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식 전수가 아닌 ‘대화’와 ‘탐구’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며, 소통과 협업 능력 배양을 위해 협동적 학습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 학습이 강조됩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층적·다면적인 교육현장의 우수사례와 시행착오를 참고하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하는 교수학습법이 요구됩니다.³⁾

변혁적 교수학습법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이러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변혁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⁴⁾

-스위힌 토(Swee-Hin Toh) 알버타대학 명예교수

세계시민교육의 차별적 특징인 변혁적 교수학습법(transformative pedagogy)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능동적으로 생각하며, 학습과정에 기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이 머리를 넘어 마음과 손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념화 될 수 있습니다. 변혁적 교수학습법은 팬데믹 현상과 같은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학습을 장려하고,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 세계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 아태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한국어 해제본), 2015

4)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 2018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환경과 학습과정의 한 부분인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교실 안팎에서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⁵⁾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또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원의 습관적 행동을 재교육하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며, 질문에 기반을 둔 참여적·창조적·경험적 공동체 활동과 민주적 학습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⁶⁾

유네스코가 세계시민교육에서 권장하는 다양한 변혁적 교수법의 예시로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이벤트 기반학습(Event-based Learning),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예술/미술 기반 인지 학습(Art-based Learning),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프로젝트 기반습학습(Project-based Learning),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이 있습니다. ICT 자체로는 학습법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현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가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점점 더 광범위한 ICT 교육이 요구됩니다.⁷⁾

본 교사용 가이드는 다양한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소개하며, 현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활동을 제시합니다. 초등과 중등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수업활동을 위한 교사용 팁과 학습자료도 포함합니다. 동 자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인류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배양하여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인 주체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 아태교육원, Reconciliation, Peac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9

6) 아태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7) 유네스코, 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template, 2018
유네스코, Teaching and learning transformative engagemen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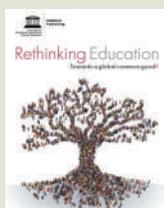
참고자료



아태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62&page=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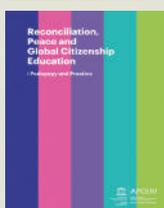
아태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한국어 해제본), 2015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71&page=5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2018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89&page=2



유네스코, 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template, 201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452>



아태교육원, Reconciliation, Peac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9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m412&wr_id=93



유네스코, Teaching and learning transformative engagement, 2019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m412&wr_id=92&page=2

활용법

Q1. 본 교사용 가이드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의 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특정 학년의 교과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교사의 판단 및 학습 수준에 따라 급별에 상관없이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각 활동별 소요시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본 교사용 가이드는 교사가 그 구성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열어두었습니다. 각 활동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몇몇 단계를 제외하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연과정을 통해 제시된 예상 소요시간은 각 수업 모듈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3. 본 교사용 가이드에서 강조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에 구성된 수업활동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teaching)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facilitating)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혁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변혁적인 교수법을 필요로 합니다.
 - 학습자가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학습자가 주류 담론의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 희망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 지역사회 교육환경 외부에 있거나 좀 더 넓은 사회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Q4. 본 교사용 가이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는 학습자가 팬데믹과 관련된 전 지구적인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소통, 협력, 창의 및 실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권과 사회정의, 다양성, 평등,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목 차

발간사.....	2
들어가며.....	4
활용법.....	9

01	팬데믹 현상의 이해와 문제 상황의 인식	13
	양철진 (경기 송우중학교 교사)	
02	팬데믹 속 인포데믹 현상과 정보 소비자	33
	양철진 (경기 송우중학교 교사)	
03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이해 및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함양	53
	최인선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사)	
04	팬데믹과 글로벌 거버넌스	73
	최인선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사)	
05	팬데믹과 인권	95
	최윤경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06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	121
	최윤경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1

팬데믹 현상의 이해와 문제 상황의 인식

양철진

01

팬데믹 현상의 이해와 문제 상황의 인식

학습목표

- 팬데믹에 따른 사회 변화와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 팬데믹과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탐색할 수 있다.
- 팬데믹의 다양한 해결 방안과 생활 속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키워드

- 신종 감염병, 감염병의 원인, 인수공통감염(人獸共通感染症), 불평등, 생태계, 환경 파괴, 기후 변화

핵심역량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 능력

교과

- 국어, 사회, 도덕, 보건, 미술

한눈에 보기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팬데믹 현상과 문제상황 인지하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용어의 뜻 생각해보기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 이후의 모습 	팬데믹 용어에 대한 이해와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촌의 현상 돌아보기	1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의 현상과 문제 인식을 통한 단어 조합 워드클라우드 만들기 이미지 배열을 통한 비주얼 스토리텔링 활동하기 	팬데믹 현상의 이해,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상황의 인식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결과 발표하기 및 내용 공유하기 	모둠별 결과물을 공유 및 팬데믹 현상의 정리	10분
팬데믹 현상의 근본원인 탐색하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시간의 팬데믹 현상에 대해 확인하기 5why 기법 안내하기 	팬데믹 현상에 대한 지난 시간 내용의 파지 및 확인과 본시 수업을 위한 사전 안내	7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why기법을 활용한 팬데믹의 원인 분석을 위한 탐색 활동(문제정의, why 활동) 팬데믹 현상의 다양한 원인 열거하기 팬데믹 현상의 근본원인 탐색하기 	모둠 협업 활동을 통해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 분석과 근본원인의 도출	33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발표 및 5why활동 결과 공유하기 	차시 활동의 팬데믹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전개 활동의 5why기법 결과 발표 및 모둠별 자료 공유하기	5분
팬데믹 현상의 대안 탐색과 생활 속 실천과제 제시하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시간의 5why 활동의 결과와 팬데믹의 근본 원인 비교 활동 내용 제시하기 	팬데믹 현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점검 활동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why 활동의 결과에 따른 팬데믹의 원인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 제시하기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 찾기 만다라트 활동을 통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실천과제 완성하기 	팬데믹 현상의 다양한 원인들을 문제해결 방안과 이를 위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 과제의 탐색	3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의 극복과 세계시민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기 	전지구적 문제로 팬데믹을 인식하고 팬데믹에 대처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태도	5분

01 팬데믹 현상의 이해와 문제상황의 인식

교수학습법

가. ICT 활용 수업

ICT를 활용하는 수업은 하나의 수업 방법이라기 보다는 컴퓨터의 발명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의 수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ICT의 의미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하드웨어인 정보통신 기기의 운용 및 활용과 더불어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ICT 용어의 개념적 논의가 과거에 비해 언급되는 빈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교육 활동에 수업의 부수적인 기기나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 5why 기법

5why기법은 1930년대에 일본 도요타 산업의 창립자인 도요타 사키치가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은 1970년대에 인기를 얻어 여전히 오늘날 다른 회사와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수업 활동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핵심적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섯 번에 걸친 질문을 실행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다섯 번의 '왜?' (why?)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 상황이 나타난 표면적 이유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탐색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근본적인 원인과 명확한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문제 해결 방안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이 기법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팀 구성: 문제의 프로세스 참여를 위한 팀구성 (촉진자 역할 포함)
- ② 문제 정의: 실제 문제의 관찰, 팀원이 모두 동의하는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 설명 작성
- ③ "Why?"활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팀에 질의, 명료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
- ④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 찾기: 5why 활동을 통해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의 탐색
- ⑤ 근본 원인의 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 확인된 근본 원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탐색 및 제시
- ⑥ 제시된 대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 5가지 이유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유를 통한 대안의 효과성 및 문제 상황 점검

〈5why 기법 활용 활동 예시〉

5why 기법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워싱턴 주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퍼슨 기념관의 기념물 중 하나가 크게 부식되고 문제 상황이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관리 부실이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why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제퍼슨 기념관의 5why 기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제 상황 (situation): 워싱턴 DC의 기념물 중 하나가 심하게 부식되고 있다.

② 5why 활동

- Why 1: 왜 기념물이 심하게 부식되는가?

⇒ 화학 세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

- Why 2: 왜 화학 세제를 자주 사용하는가?

⇒ 기념물에 있는 많은 새 배설물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

- Why 3: 왜 기념물에 새 배설물이 많은가?

⇒ 기념물에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들이 많기 때문

- Why 4: 왜 거미들이 기념물에 많은가?

⇒ 거미의 먹이인 곤충 떼가 황혼 무렵 기념물로 몰려 오기 때문

- Why 5: 왜 황혼 무렵에 곤충 떼가 기념물로 몰려오는가?

⇒ 저녁에 기념비의 조명이 곤충을 끌어 들이기 때문

③ 해결책: 조명으로 인한 곤충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녁에 기념비를 비추는 방법을 변경한다.

다. 워드클라우드 활용 수업

워드클라우드 활동은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와 키워드를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활동으로 용어의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인지적 측면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 주제와 관련된 수업의 도입부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별 활동과 모둠별 활동 모두 진행할 수 있으나 모둠원들이 관련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다양한 용어들이 도출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둠별 협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주제어를 생각하고 나열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수업 활동의 전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드클라우드 활동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앱은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앱, 사용기기 등에 따라 각각에 대한 장점을 살린 최적화된 도구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클라우드의 이미지는 앱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통해 키워드를 형상화한다면 효과적 도구로서의 수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팬데믹 상황에 맞춰 마스크 이미지를 삽입하여 워드클라우드 활동을 한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Tagxe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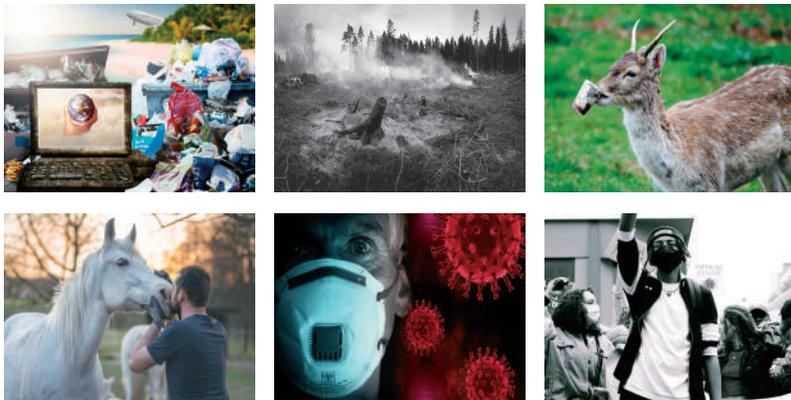


라. 이미지 배열 스토리텔링

이미지 배열 스토리텔링 활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등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있고 수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활동에는 인포그래픽 만들기, 카드뉴스 만들기가 대표적인 수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미디어를 어디까지 언급하는가에 따라서 비주얼싱킹이나 디자인싱킹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미지를 배열하는 활동은 오래전부터 사진 실뜨기, 이미지 스토리텔링, 사진말 수업 등의 유사한 활동 명칭으로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배열 스토리텔링은 다른 비주얼 스토리텔링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이미지를 찾는 활동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배열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수업 방법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모둠의 창의적 역량과 심리적 역량 등도 부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주제인 팬데믹과 관련된 이미지 배열 스토리텔링 활동에 대한 이미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6장의 이미지는 각각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활동 예시〉

▶ 이미지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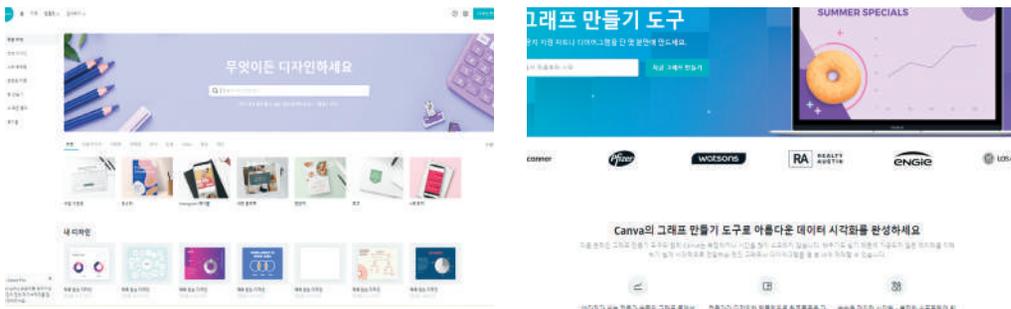
[출처] Pixabay, <https://pixabay.com/ko/>

▶ 이야기 만들기(스토리텔링)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숲과 산림이 파괴되면서 동물들이 살아가야 하는 서식공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동물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동물과 접촉하게 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게 된 인간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의 하나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의료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다양한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

마. 캔바(canva)를 활용한 그래프 그리기 활동

캔바(canva)는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제작 툴입니다. 캔바(canva)는 전문적인 이미지 관련 유틸리티나 프로그램 등에 비해 다소 전문성이나 세밀함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짧은 시간 동안 쉽고 빠르게 학생활동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캔바(canva) 툴을 단순히 그래프를 만드는 것에 활용하였지만, 이 툴은 그래프 외에도 카드뉴스, 각종 배너, 포스터, 블로그 문구, 각종 이미지 창 등 다양하고 폭넓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디지털 도구입니다.



[출처] 캔바(canva), <https://www.canva.com/>

바. 만다라트 활동 수업

만다라트 활동 수업은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생각의 도구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로 창안한 만다라트 기법에서 착안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수업입니다. 만다라트(manda+la+art)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란 뜻이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 따르면 만다라는(曼荼羅) 본질(mandal) + 소유(la)로 이루어진 단어로 깨달음의 경지를 반복되는 원과 네모, 연꽃무늬 등으로 표현한 그림이며 현대의 미술치료나 심리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다라트 수업활동의 장점은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거나 인지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와 태도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지니도록 하는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final goal)와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s) 사이의 구분의 과정에서도 목표를 관통하는 맥락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표에 따른 요소들과 세부요소 및 실천과제를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실천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나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도 쉽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트 수업활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중앙에 활동을 통해 모둠원들이 협의한 알게 된 최종적인 실천 목표를 적습니다. 이때, 5why 활동을 통해 도출된 근본 원인의 해결 및 대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큰 목표를 설정합니다.
- 실천 목표 주변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8개의 요소들을 결정하여 8개의 해당 칸에 적습니다.
- 8개의 실천요소와 관련하여 하위 빈 칸에는 실천요소와 연관된 세부요소와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과제로 빈칸을 채웁니다.
- 완성된 만다라트를 가지고 목표를 향한 자신의 실천 자세에 대해 진단하거나 성찰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 만다라트의 실천과제와 관련된 활동의 예시는 아래와 같이 야구선수인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달성 계획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트 활동 예시>

몸관리	영양제 먹기	FSO 90kg	인스텝 개선	몸통강화	속을 흔들리지 않기	각도를 만든다	공을 위에서 던진다	손목강화
유연성	몸만들기	RSO 130kg	힐리즈 포인트 안정	제구	불안정함을 없애기	힘 모으기	구위	하체 주도로
스태미너	가동역	식사 저녁 7수저 (가득) 아침 3수저	하체강화	몸을 열지않기	엔탈 컨트롤 하기	볼을 앞에서 힐리즈	회전수업	가동력
뚜렷한 목표, 목적을 가진다	알회일비 하지 않기	머리는 차갑게 삼장은 뜨겁게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속을 돌리기	하체강화	체중증가
핀치에 강하게	엔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엔탈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스피드 160km/h	몸통강화	스피드 160km/h	어깨주위 강화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않기	승리에 대한 집념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인간성	운	변화구	가동력	라이어 캐치볼	피칭을 늘리기
감성	사랑받는 사람	계획성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카운트볼 늘리기	프크볼 완성	슬라이더의 구위
배려	인간성	감사	물건을 소중히 쓰자	운	심판문을 대하는 태도	늦게 낙차가 있는 커브	변화구	좌타자 결정구
예의	신뢰받는 사람	지속력	플러스 사고	응원받는 사람이 되자	책임기	직구와 같은 몸으로 던지기	스트라이크에서 볼을 던지는 제구	거리를 이미지한다

[출처] 서울교육나침반 블로그

〈만다라트 활동표〉

	세부요소 실천과제			세부요소 실천과제			세부요소 실천과제	
			실천요소	실천요소	실천요소			
	세부요소 실천과제	실천요소	실천목표	실천요소			세부요소 실천과제	
			실천요소	실천요소	실천요소			
	세부요소 실천과제			세부요소 실천과제			세부요소 실천과제	

1. 팬데믹 현상과 문제 상황 인지하기

활동목적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 현상의 이해와 더불어 당면한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코로나19와 팬데믹 이후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에 나타난 변화와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 수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이러스 감염병과 팬데믹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모둠별로 팬데믹과 관련된 현재의 우리와 세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팬데믹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을 모둠별로 탐색하게 합니다.
- 팬데믹을 주제로 한 모둠에서 협의된 단어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 단어를 조합하여 워드클라우드 앱을 완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완성된 모둠별 워드클라우드 결과물을 공유하고 팬데믹과 관련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 팬데믹 현상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합니다.
- 읽기자료 속에 담긴 내용을 5~6가지 모습으로 정리합니다.
- 정리한 읽기자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습니다.
-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합니다.
- 완성된 학생 활동 결과물을 발표를 통해 공유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활동1]은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현재의 인류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생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모둠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워드클라우드에 입력하는 활동으로, 이후의 활동을 위한 도입부의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이 관련 이미지를 출력해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스크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학생들이 모둠 안에서 협의해서 선정하고 결정된 이미지에 워드클라우드를 완성하여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읽기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내용에 대해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세계가 처한 글로벌 위기에 대해 생각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읽기자료 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나 읽기자료 상황에 대해 영상을 떠올려 보도록 지도하고 검색을 통해 스스로 떠올렸던 이미지나 영상과 관련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 배열 카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지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배열된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도록 안내합니다.

[읽기자료1]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딱 그렇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 팬데믹을 불러온 셈이다. 이 틈에 인종주의, 배타주의, 차별과 혐오가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회심리적 팬데믹이라고나 할까? 여기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심상치 않다. 그야말로 '멀티플 팬데믹'이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글로벌 감염병을 뛰어넘는 '멀티플 팬데믹'과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더불어 대두된 경제 불평등, 인종주의와 배타주의, 차별과 혐오,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물론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문제들이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빈부 격차는 인종 차별이나 혐오에 맞물려 있고,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도 불평등이나 차별에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백신과 치료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듯, 서로 얽혀 있는 멀티플 팬데믹을 해결하려면 이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 연대와 공동 행동이 절실하다.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읽기자료2]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은 모두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症)으로 이는 동물이 자연 숙주인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킬 때 그 감염병을 일컫는 말이다. 이 감염병들은 또한 신종(emerging)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 동안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던 병원체가 새로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중략) 오래 전부터 인류와 공존해온 인수공통감염병이 그것도 신종의 형태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 전문가는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전에 없던 대규모 산림 파괴와 경지개발 등이 사람과 동물이 더 자주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부추기고, 그 결과 동물에 있던 병원체가 더 쉽게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생태계가 달라지면서 병원체의 변이가 더 쉽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밀림의 야생 동물에게 존재하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숲이 없어지면서 인간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바이러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변화하며 인간에게 전파된다. 에볼라가 발생한 서부 아프리카 2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산림을 없앤 지역에서 유행의 확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는 이러한 신종 감염병 발생의 정치경제를 뒷받침한다. 1998~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니파바이러스 유행 또한 숲을 파괴하여 양돈 농장을 확대한 결과라고 추정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조건, 즉 산림을 없애고 경지를 확대하며 숲 속에 축산 농장(공장)을 짓는 일은 각 경제 주체의 동기나 행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파괴한 후(여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한다) 바이오 연료 생산용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세계적 에너지 생산-소비 체제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대상과 영역이 농업, 임업, 축산업 그 무엇이든 새로운 환경과 조건은 세계적 규모로 구축된 불평등한 국제 분업 체계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랜데믹 (이매진, 2020)

더 알아보기

워드클라우드 활동

- 워드클라우드: <http://wordcloud.kr>
- 돈버는 아이디어 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alkQ3Ze-yK0>
- 대구미래교육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qvhbXOBXYnM>
- Tableau: <https://kb.tableau.com/articles/howto/creating-a-word-cloud?lang=ko-kr>
- Hello I'm Awesome: <https://hello-imawesome.tistory.com/5>
- The Tech Train: <https://www.youtube.com/watch?v=my1JRX84tyc>
- BlogVisuals: <https://www.youtube.com/watch?v=77ajgsDIhqw>
- Es Facil : <https://www.youtube.com/watch?v=dMy0ZcOiF6s>

비주얼 스토리텔링 활동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독다독: <https://dadoc.or.kr/1929>
- Jisang Kim, 인포그래픽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힘: <https://www.slideshare.net/jisangkim/ss-59613221>
- 어도비코리아: <https://blogs.adobe.com/creativedialogue/design-ko/7-strategies-for-effective-visual-storytelling-kr>
- 셀프메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cadWU25blzw>
- 헤드라인 뉴스: <https://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2>

활동지 1.

팬데믹 현상과 문제 상황 인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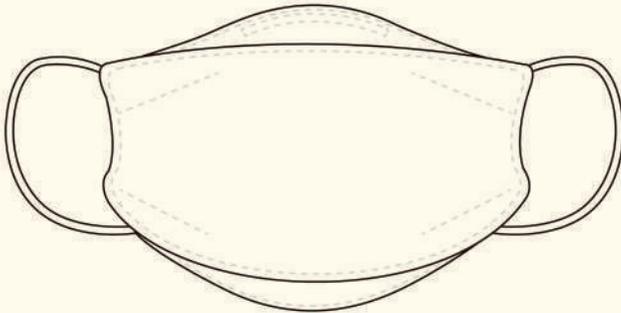
1. 팬데믹 이후에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에 나타난 모습에 대해 적어 봅시다.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

2. 워드클라우드를 완성하기 위해 협의한 단어들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연관된 영역으로 분류해 봅시다.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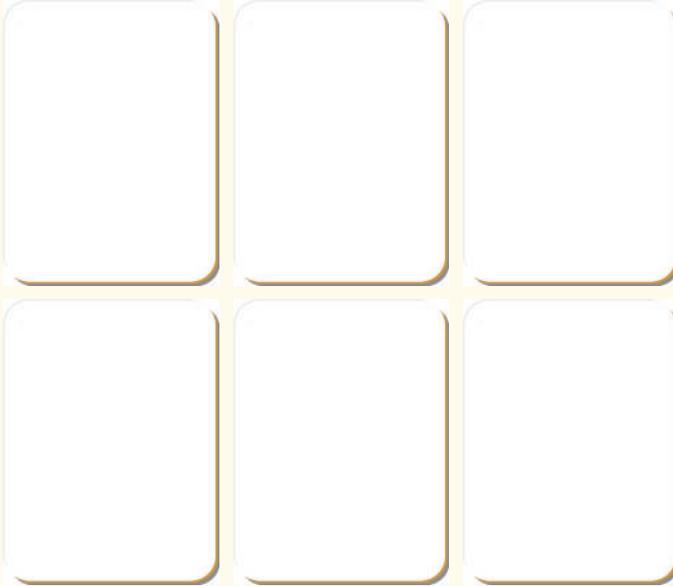
3. 모둠에서 결정된 단어들을 모아 아래의 마스크 모양의 그림에 배치하여 워드클라우드(단어 구름)를 만들어 봅시다.
(팬데믹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그림으로 제작해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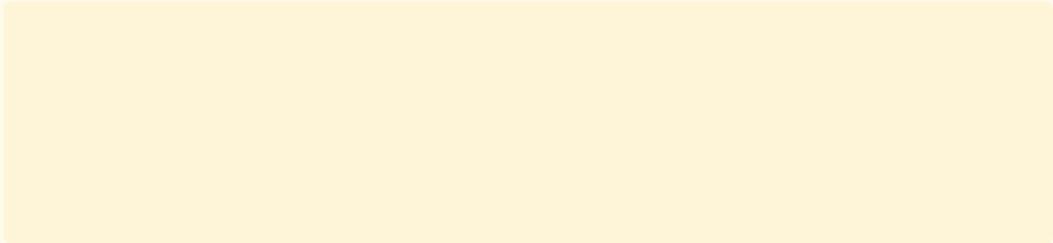
4.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요?

5. [읽기자료 2]에서 글쓴이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한 원인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나요?

6. 위의 읽기자료 속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떠오르는 5~6개의 모습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 이미지 카드를 완성해 봅시다.



7. 이미지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순서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팬데믹과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봅시다.



8.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적어 봅시다.



9.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구촌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팬데믹 현상의 근본 원인 탐색하기

활동목적

5why 기법을 통해 팬데믹의 원인에 대해 탐색하고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5why 기법과 의미와 활동 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 5why 기법을 활용한 모둠별 활동지를 배부합니다.
- 모둠별로 5why 기법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과정은 다음의 6단계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활동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 ① 팀구성: 모둠이 이미 정해진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② 문제정의: 코로나19 및 팬데믹 상황에 대한 문제를 문장으로 진술합니다.
- ③ “Why?”활동: 팬데믹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반복적 질문과 답변을 시도합니다.
- ④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 찾기: 팬데믹 상황의 문제를 파지하고, 5번의 “why?”활동을 통해 알게 된 팬데믹의 근본 원인을 활동지에 기입합니다.
- ⑤ 해결 방안 및 대안 탐색: 모둠에서 채택한 팬데믹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 ⑥ 논의된 대안의 점검: 팬데믹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점검 및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의미 있는 대안 도출을 권장합니다.

- 각 모둠에서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원인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 토의 과정에서 나타난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들을 나열하도록 합니다.
- 각 모둠에서 도출된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과 근본 원인들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다른 모둠과 비교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5why 기법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목적은 코로나19와 팬데믹에 대한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근본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수업 활동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측이 아닌 현재의 사실에 기반하여 답변하도록 안내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찾는 작업을 모둠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근본 원인을 5번의 why? 질문 이전에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모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을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질문에 도달하는 활동을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십시오.
- 5why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 하는 모둠 혹은 학생이 있는 경우, 굳이 5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근본원인을 도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지 2.

팬데믹 현상의 근본 원인 탐색하기

1. [문제상황 확인, 5why 활동, 근본원인 찾기]

팬데믹의 원인에 5why기법을 활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문 제	
Why 1	
Why 2	
Why 3	
Why 4	
Why 5	
근본원인	

2.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 열거하기]

5why 활동을 통해 모둠에서 언급했던 팬데믹 현상의 다양한 원인들을 나열해 봅시다.

--

3. [근본 원인 비교하기]

모둠에서 선정한 팬데믹의 근본원인을 적고 다른 모둠이 선정한 근본원인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 모둠이 선정한 팬데믹의 근본원인	다른 모둠이 선정한 팬데믹의 근본원인

4. 다른 모둠원들의 분석 결과와 우리 모둠의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자신의 의견을 적어 봅시다.

--

3. 팬데믹 현상의 대안 모색과 생활 속 실천 과제 제시하기

활동목적

팬데믹의 근본 원인을 바탕으로 대안으로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의 자세를 모색해 봅니다.

활동방법

- 전 차시의 각 모둠에서 나왔던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을 취합하고 취합한 팬데믹의 원인을 모아서 캔바(canva)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표시하고 칠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합니다.
- 모둠원들의 협의를 통해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을 문제해결 방법과 연결하여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의 영역에 따라 분류하도록 합니다.
- 그래프의 내용을 보고 근본원인과 함께 해결 방안의 탐색을 위해 모둠별로 협의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로 5why 기법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과정은 다음의 6단계 중 해결방안과 대안의 탐색 과정, 도출된 대안의 성찰 과정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 만다라트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모둠별 협의를 통해 만다라트 활동을 전개하도록 안내합니다.
- 만다라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만다라트의 과제 중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자세를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공유하도록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5why 기법으로 도출된 근본 원인도 중요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전 차시의 내용 확인과 더불어 팬데믹의 원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팬데믹 원인에 대한 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채택하였습니다.
- 캔바(canva) 디지털 도구에는 직관적으로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정해주지 않고 모둠 안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래프를 작성하도록 하면 팬데믹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그래프의 표현방식으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을 캔바(canva)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정리하는 활동은 캔바 도구 자체가 쉽고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그래프의 모양이 가능한 면도 있어서, 구성력에 따라 팬데믹의 원인을 학생들이 쉽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만다라트 활동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내용들을 세부요소와 실천과제 영역의 칸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앞에서 5why 기법에서 나온 다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적절한 세부요소와 실천과제를 만들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다라트의 대표적인 사례와 예시를 제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만다라트 기법

- 중앙일보: <https://tong.joins.com/archives/15633>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79401.html
- 서울교육 나침반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edu2012&logNo=22060819425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에듀진 신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8>
- 스쿨잼: <https://www.youtube.com/watch?v=SK56QotLzSc>
- Seeds of Idea : <https://muran.denso.com/en/2020/02/07/idea-creation-method-mandalat/>

활동지 3.

팬데믹 현상의 대안 모색과 생활 속 실천 과제 제시하기

1. [팬데믹의 원인 그래프 제작하기]

지난 시간의 5why 기법을 통해 각 모둠에서 언급된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들을 취합하여 그래프로 만들어 출력하여 칠판에 부착해 봅시다.

2. [모니터링 및 점검]

팬데믹의 다양한 원인을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지구촌	우리 나라	우리 지역

3. [해결방안 제시]

위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5개의 해결방안을 적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적어 봅시다.

해결방안1	
해결방안2	
해결방안3	
해결방안4	
해결방안5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2

팬데믹 속 인포데믹 현상과 정보 소비자

양철진

02

팬데믹 속 인포데믹 현상과 정보 소비자

학습목표

- 팬데믹 상황에서의 언론과 미디어의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포데믹 현상과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팬데믹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보소비자로서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

키워드

- 팬데믹, 인포데믹, 가짜뉴스, 미디어,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소비자

핵심역량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 능력

교과

- 국어, 사회, 도덕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PBL 활동을 위한 미디어와 언론의 문제 상황 인식 및 주제 제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PBL 수업에서의 문제 상황 이해하기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상황 탐색활동 	PBL 수업활동을 위한 현재의 문제 상황 발견하기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자료] 속의 핵심어와 문제 상황 파악하기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여 PBL 문제 상황에 대해 모둠별로 협의 활동 	읽기자료의 내용에서 PBL 수업의 문제상황 추출하기	3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결과 발표하기 및 내용 공유하기 [읽기자료]를 기반으로 모둠에서 선정한 PBL 수업의 문제 발표 	PBL수업의 핵심문제 제시하기	5분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포데믹 현상 이해하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간의 수업으로 문제 상황과 핵심어 돌아보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 활동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주제와 문제상황의 명료화	8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카인즈 웹사이트를 통한 언론보도 단계별 빅데이터 분석 활동 빅데이터 분석 내용의 모둠별 협의 활동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완성하기 	구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한 문제 상황의 인식과 인포데믹 현상의 이해	32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포데믹 용어의 의미 정리하기 모둠별 발표 자료 공유하기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생각나누기	5분
팬데믹 속 가짜뉴스 팩트체크 활동을 통한 정보 소비자의 역할 인식하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포데믹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인포데믹 용어의 의미 적어 보기 	인포데믹 용어의 의미 이해하기	1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짜뉴스의 판별 방법과 기준 설정하기 팬데믹 관련 가짜뉴스 검색 및 사실 확인하기 뉴스페이퍼 클럽에서 가짜뉴스를 수정하는 팩트체크 기사문 작성하기 	팬데믹 관련 가짜뉴스를 검색 및 수정 기사문 작성을 통해 가짜뉴스 판별 방법의 적용	6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보도준칙을 참고하여 언론 보도의 인포데믹 현상의 해결 방안 협의활동 바람직한 정보 소비자로서의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팬데믹 상황 속 인포데믹 현상에서의 바람직한 정보 소비자의 역할 인식	15분

01

팬데믹 속 인포데믹 현상과 정보소비자의 역할

교수학습법

가. 문제기반학습 (PBL)

PBL (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은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인식하도록 제시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모둠별 협력의 과정을 거쳐 문제의 상황을 탐색하고 인식하며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PBL은 수업의 시작을 문제 상황 혹은 문제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이때의 문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 구글 잼보드(Google Jamboard)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 툴을 화이트보드만큼 단순하지만 더욱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소개하고 있고, 구글의 다양한 검색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빠르게 구글 드라이브와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을 자동으로 저장하며 다양한 인식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잼보드 활동을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수업 활동을 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잼보드는 학생들의 협업 작업을 위한 공동 아이디어 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잼보드를 사용하면 공동 작업 세션의 모든 공동작업자가 학습 내용을 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아웃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공동 작업을 발표할 수 있으므로 공유나 실제 연결이 간편해집니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 활동이나 공동작업을 도울 수 있어 본 수업에서 PBL 수업에서 강조되는 문제 인식의 단계에서 활용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코로나19, 미디어 등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PBL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 상황의 인식과 핵심 문제의 발견과 도출을 위해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출처] 구글(Google), 교육용 잼보드(Jamboard) 소개, <https://teachercenter.withgoogle.com/first-day-trainings/welcome-to-jamboard>

다.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웹사이트

빅카인즈는 신문 방송 등 국내 53개 주요 언론사의 최신 뉴스가 매일매일 30년간 약 6천 5백만건 축적되어있는 국내 최대의 공공 뉴스 아카이브로서, 뉴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팬데믹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뉴스 분석방법은 다음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분석 방법은 빅카인즈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나타나며 오른쪽 하단 부분에 분석 방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홈페이지 하단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분석 방법

뉴스 분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뉴스 검색

뉴스 검색은 검색 조건, 상세검색, 나의 사전, 나의 검색식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 검색조건 : 기간, 언론사, 통합분류, 사건사고 분류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상세검색 : 결과 범위를 좁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나의 사전 : 어휘 분류를 활용해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 나의 검색식 : 직접 구성하여 저장된 검색식을 활용해 검색합니다.

Step 02. 검색 결과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해 검색 결과의 범위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 검색 필터 : 검색 필터 조건을 이용해 범위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내 재검색 :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좁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선택 삭제 : 목록에서 뉴스를 선택하여 범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검색식 저장 : 뉴스검색 조건과 필터링 조건을 저장하여 나의 검색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분석 결과 및 시각화

검색 및 검색 필터링을 통한 뉴스를 토대로 분석 및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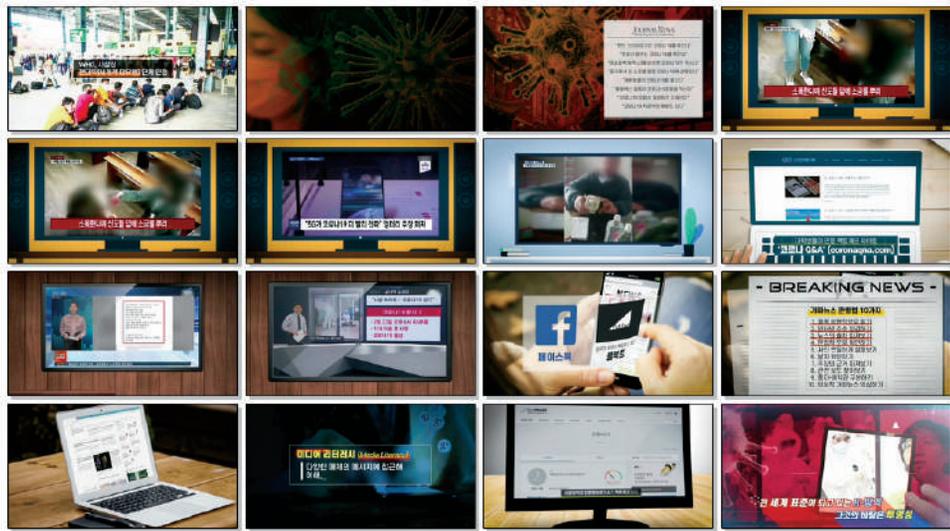
- 데이터 다운로드 : 분석 결과 데이터 미리 보기 및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입니다.
- 관계도 분석 : 검색한 뉴스에서 주종된 관계(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키워드 트랜드 :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관어 분석 : 뉴스 분석 건수에 따라 검색어의 연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 추출 : 구문 패턴 문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출처] 빅카인즈(Big Kinds)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intro/service.do#news_service

라.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과 가짜뉴스 이해를 위한 동영상 자료

수업의 첫 동기유발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인포데믹과 가짜뉴스,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가짜뉴스가 그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인포데믹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보기]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 “인포데믹을 이기는 미디어 리터러시”, https://www.youtube.com/watch?v=CkMIU_3hK9g



마. 뉴스페이퍼클럽(<https://www.newspaperclub.com/>) 신문 기사 제작 사이트

뉴스페이퍼클럽(newspaper club)으로 신문기사 만들기 활동은 웹 상에서 신문기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웹 안에서 신문기사의 포맷이 갖춰져 있고, 몇 개의 버튼만으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기사문을 손쉽게 입력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활동이나 모둠별 활동에서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통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실제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수업 결과물을 제출하고 쉽게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art making a newspaper in ARTHR

ARTHR is our tool to help anyone make and print a newspaper, quickly and easily. [Find out more.](#)

Start with a Demo Design



A new newspaper containing some example words and pictures to play around with — perfect if you've not used ARTHR before. When you've had a go, just delete the examples and add your own.

[Start with a Demo Design](#)

Start with a Blank Design



A blank canvas, ready for you to add your own words and pictures to.

[Start with a Blank Design](#)

Already started making a paper?

[Sign in to your account](#) to open any papers you've started working on.

[출처]뉴스페이퍼클럽(Newspaper Club) 홈페이지, <https://www.newspaperclub.com/>

1.PBL 활동을 위한 문제 상황 인식 및 주제 제시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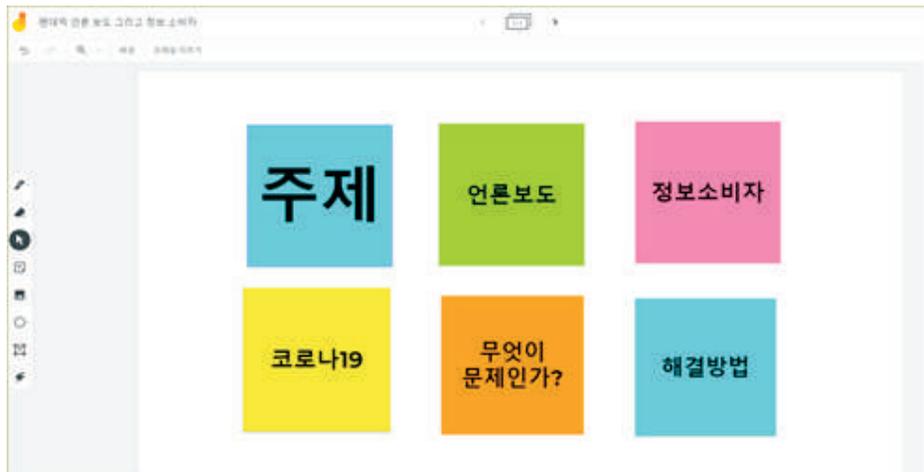
PBL 수업 활동을 위한 미디어와 언론의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수업 활동의 주제로 제시합니다.

활동방법

-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합니다.
- 읽기자료에 담긴 주제와 핵심적인 용어들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 읽기자료의 내용에 담긴 문제 상황에서 대해서 모둠원들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 구글 잼보드에 문제 상황에 대한 모둠원들의 의견을 스티커 메모지에 부착하도록 지도합니다.
-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여 모둠원들의 의견을 간추려서 모둠별 협의 내용에서 주된 문제 상황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이후 수업 활동에서 이야기할 핵심 문제를 모둠별로 제시하고 구글 잼보드를 통해 공유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활동1]은 코로나19와 팬데믹에 대한 문제 상황을 기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고,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PBL 수업에서 인식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읽기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읽기자료]를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모둠을 통해 스스로 협의하고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앱인 잼보드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앱의 장점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전자칠판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유도는, 교사의 체계적인 학생 활동 관리가 부재할 경우 정해진 시간에 수업 활동을 정교화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교육이 요구됩니다.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정리하여도 되고, 선생님이 적절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일정 부분 모둠 활동의 협의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글 잼보드를 활용한 핵심문제 논의하기의 예시입니다.



[읽기자료1]

매우 안타깝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때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발생하는 시기가 이어지며 ‘코로나 종식’ 또는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분위기도 형성됐지만, 이태원 클럽, 학원 강사의 거짓말, 소셜 커머스 물류 창고, 소규모 종교 행사 등이 차례로 불거지면서 사태 초기 엄습한 두려움이 다시 밀려드는 형국이다. 겨우 문을 연 몇몇 미술관과 박물관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다시 문을 닫았다. 밀릴 때까지 밀리던 학생들의 등교가 조금씩, 조심스레 시작됐지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긴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위기의 종식 또는 최소한의 피해를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려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며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보건 위기 때 대표적인 활동 주체는 의료진이지만, 정부 당국과 개별 지자체도 핵심 행위자다. 평범한 시민의 자발적 행동 또한 사태 해결에 필수 조건이다. 이런 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은 특정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영역을 담당해야 하며, 각자 해야 할 노력을 다하는 이 과정을 ‘위기 관리(risk management)’로 부를 수 있다. 위기 관리의 다양한 측면과 대상, 차원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방역(quarantine)이 핵심 영역이고, 관련 정책도 필수이며, 경제적 지원에, 외교 분야의 노력도 결정적 사안이다. 더불어 위기 관리의 주요 영역으로 보건 위기 때 수행하는 소통(risk communication)을 들 수 있다. 위기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정보를 얼마나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지에 따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정보에 민감해진 대중은 주요 정보원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런 과정을 거쳐 내린 판단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 위기 때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내용, 방향성 등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위기 때의 소통과 정보 흐름에 핵심 영역의 하나가 ‘언론’이다. 여러 미디어를 거쳐 쏟아지는 콘텐츠에 개인의 삶은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건 위기가 닥치면 정보량 자체가 많고 영향력도 강한 미디어에 사람들이 특별한 구실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요구를 ‘심리적 방역(psychological quarantine)’으로 부르려 한다. 언론은 감염병 위기 때, 특히 코로나19에 관련해 어떤 유형과 내용을 가진 정보를 생산했을까? 심리적 방역이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도 있지만, 스스로 합의한 준칙을 어기면서 공공의 이익을 거스르는 콘텐츠를 찍어내기 바빴다. 피해를 덧내고 분열을 키우고, 때로는 가짜 뉴스 중개자 노릇을 한 사례도 많았다.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뒤, 언론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정보 소비자의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에 관해 살펴보자.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활동지 1.

읽기자료를 통한 문제 상황 인식하기

1. [읽기자료 1]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용어 5개를 적어 봅시다.

2.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3. 위의 문제 상황을 토대로 구글 잼보드(Jamboard)에서 모듬별로 협의 내용을 간추려 아래의 스티커 메모지에 적어 봅시다.



4. 모듬에서 선정한 수업 활동의 핵심 문제를 적어 봅시다.

2.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포데믹 현상 이해하기

활동목적

팬데믹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데이터 분석 활동을 통해 인포데믹 현상을 인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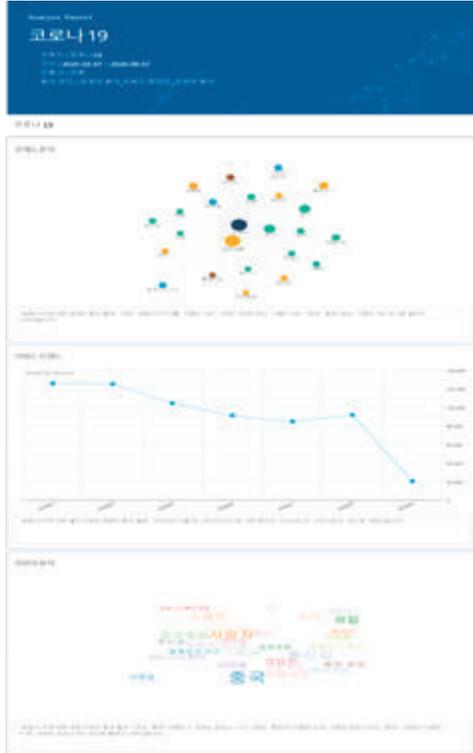
활동방법

- 지난 활동에서 모둠에서 핵심어로 제시한 용어들을 상기하도록 안내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 언론 보도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를 안내합니다.
- 빅카인즈 홈페이지 화면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검색활동을 통해서 검색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모둠별로 협의하도록 지도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활동지에 보고서 형태로 완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팬데믹과 인포데믹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활동2] 팬데믹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 검색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1]에서 코로나19와 팬데믹에 대한 문제 상황을 기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활동에서는 [활동1]의 읽기자료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언론 보도를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제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분석 보고서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활동에 대해서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활동 전개에 앞서서 언론보도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 대한 안내가 잘 이뤄져야 수업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둠별로 정할 수도 있으며, [활동1]의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께서 모둠별로 검색어를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검색어 일지라도 핵심 주제가 되는 논의가 수업의 전반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수업의 목적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빅카인즈 사이트에서 뉴스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궁금증을 가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도 분석, 트렌드 분석,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연관어 분석 등 시각적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현상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활동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협업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모둠 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 활동으로서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활동의 경우 발표나 협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결과 리포트를 학급 내에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빅카인즈의 기사를 분석하는 활동을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이나 구글 트렌드 분석(<https://trends.google.com/trends/?geo=KR>) 등을 통해서 활동을 단순화하여 수업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 분석에 따른 결과 리포트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아보기

- 빅카인즈 : <https://www.kinds.or.kr/>
- 네이버 데이터랩 : <https://datalab.naver.com/>
- 구글 트렌드 분석 :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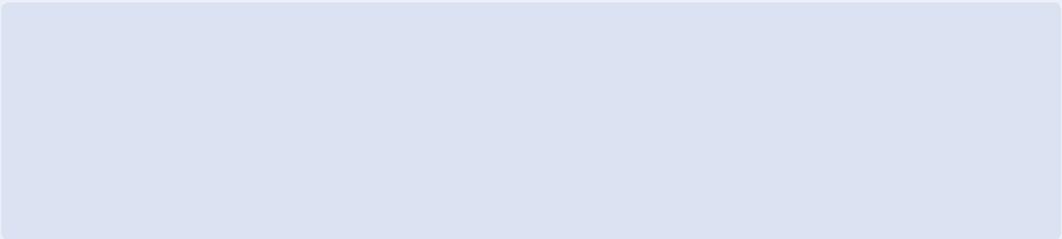
활동지 2.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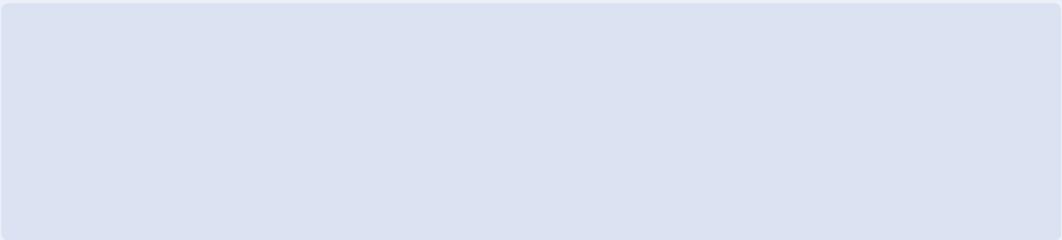
1.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사이트에서 주로 검색한 검색어를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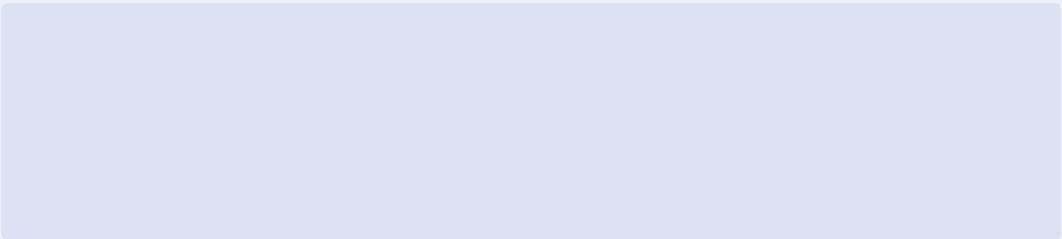
2. 뉴스 데이터의 관계도 분석 결과 이미지를 파일을 아래에 제시해 봅시다.



3. 뉴스 데이터의 연관어 분석 워드클라우드 이미지 파일을 아래에 제시해 봅시다.



4. 뉴스 데이터의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제시해 봅시다.



5. 보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한 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6. 보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7. 관계도, 연관어,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코로나19와 팬데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8.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인포데믹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3. 팬데믹 속 가짜뉴스 팩트체크 활동을 통한 정보 소비자의 역할 인식하기

활동목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타난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팩트체크의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정보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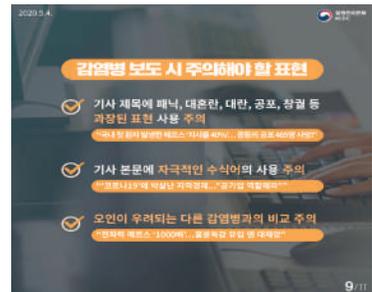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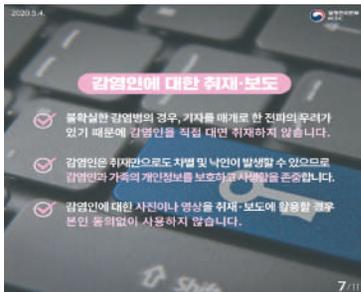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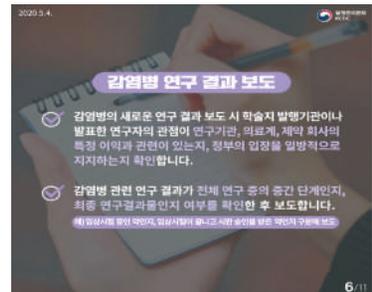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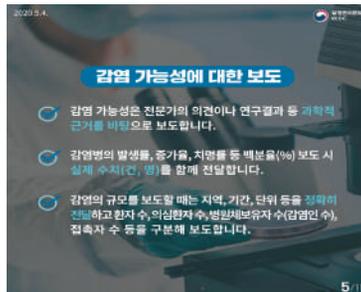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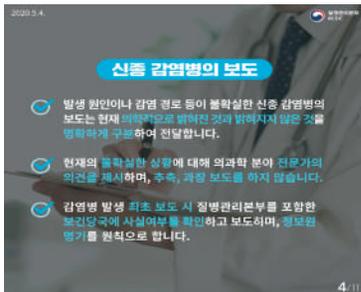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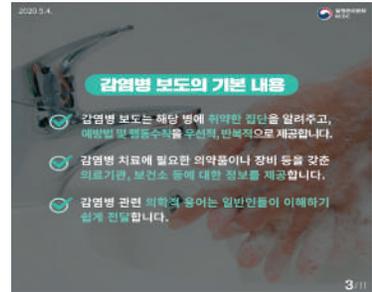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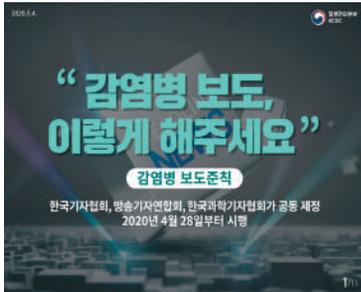
활동방법

- 활동과 관련된 동영상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 인포데믹과 가짜뉴스의 용어의 의미를 활동지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 방법과 기준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모둠별로 협의를 통해 가짜뉴스 판별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학생들이 검색하여 찾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모둠원들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 뉴스페이퍼 클럽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팩트체크의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수정하는 팩트체크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기사문 작성을 하고 난 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모둠원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둠별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 감염병 보도지침을 제시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 소비자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지도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활동3]은 코로나19 및 팬데믹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팬데믹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정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인포데믹과 가짜뉴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지를 구성하여 동영상을 통해 인포데믹, 가짜뉴스 등에 대해 이해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지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동영상이 이후 활동의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집중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뉴스페이퍼클럽에서 뉴스 제작하기 활동은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는 하나 짧은 시간의 설명만으로도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모둠별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도 충분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뉴스만들기 활동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진짜 뉴스를 찾아보는 활동을 전개해도 좋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활동은 재미와 흥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가짜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육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활동 사전, 사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뉴스페이퍼클럽에서 뉴스만들기 활동을 전개한 이후에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은 학생들이 다소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정교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카드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카드뉴스의 내용은 감염병에 관한 언론 보도에 있어서 언론이 지켜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보 소비자의 역할을 생각하고 가짜뉴스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게 모둠활동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보도준칙 카드뉴스
https://www.cdc.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list_no=144682&act=view

더 알아보기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 <http://factcheck.snu.ac.kr/>
- 두유노우[Do you know]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sBGaab2uExI>
- 미토콘드리아 스튜디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6AcEyXUaAFY&t=233s>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CkMIU_3hK9g
-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fJKPCVUIJds>
- 질병관리청 감염병 보도준칙 카드뉴스: https://www.cdc.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list_no=144682&act=view
- K-방역 이후 미디어 세상: <http://www.kocca.kr/trend/vol22/sub/s11.html>

활동지 3.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과 가짜뉴스 팩트체크 기사문 작성하기

1. 동영상을 보고 인포데믹(Infodemic)의 용어의 뜻을 적어 봅시다.

2. 검색을 통해 가짜뉴스의 판별 방법과 기준에 대해 모둠별 협의를 통해 정해 봅시다.

3.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의 예를 검색을 통해 모둠원들이 하나씩 제시하고 각각의 예들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적어 봅시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예

가짜뉴스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

4. 뉴스페이퍼클럽으로 수정 기사문을 작성한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모둠원들의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	모둠원들의 생각

5. 코로나19에 대한 인포데믹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둠별 의견을 간추려서 정리해 봅시다.

6. 참고자료인 감염병 보도지침을 참고로 하여 가짜뉴스를 대하는 바람직한 정보소비자로 서의 지켜야 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3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이해 및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함양

최인선

03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이해 및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함양

학습목표

-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을 비교·설명할 수 있다.
- 예방수칙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싱킹 할 수 있다.
-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을 통해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다.

키워드

- 시민성, 연대, 감염병, 팬데믹, 예방수칙, 페스트, 코로나19, 스페인독감

핵심역량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역사(세계사), 창의적 체험활동, 기술·가정,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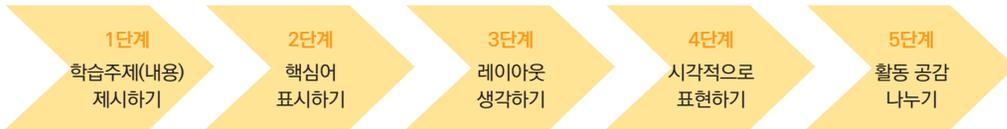
한눈에 보기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탐구하기	도입	페스트, 스페인독감, 코로나19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리 • 자료1, 2, 3을 읽고 표로 정리 • 자료4를 참고하여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파악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를 탐구하여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	100분
	전개	비주얼 싱킹으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페스트, 스페인독감, 코로나19) 표현 • 핵심어 선정, 레이아웃 결정 •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		
	정리	• 비주얼 싱킹 자료 발표 및 공유		
디자인 싱킹을 통한 예방수칙의 불편함 극복하기	도입	조선의 감염병 영상 시청 • 예방수칙의 중요성 인식	예방수칙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	100분
	전개	예방수칙 준수의 불편함 토론 • 마스크의 불편함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블루 디자인 싱킹 • 마스크 디자인 • 코로나 블루 해결을 위한 소통방 디자인		
	정리	• 디자인 싱킹 발표 및 정리		
ICT를 활용한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하기	도입	• 생활 속 거리두기 공익영상 시청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을 통해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민성 함양	150분
	전개	•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 계획서 작성 • 자료2를 참고하여 시청 대상 선정 후 스토리 구성 • 역할분담(촬영, 음악, 자막, 편집 등) • 촬영 일정 및 장소 선정 • UCC제작		
	정리	• UCC 발표 및 정리		

01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탐구

교수학습법

비주얼 싱킹 (visual thinking)은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비주얼 싱킹은 일반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핵심어를 레이아웃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수업모형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토의·토론 등)과 관련하여 수업 도입이나 정리 부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어 표시하기 : 학습 내용에서 핵심 단어에 색깔 표시를 하면서 읽고,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찾습니다.
- 레이아웃 생각하기 : 학습 내용을 파악한 후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태를 생각해봅니다.
-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생각한 레이아웃으로 다양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출처] ㈜미래엔 엔터치 홈페이지, 비주얼싱킹 소개, www.m-teacher.co.kr

활동목적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를 탐구하여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 봅니다.

활동방법

- 제시된 자료를 읽고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을 탐구합니다.
 - 페스트(흑사병), 스페인 독감,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기
 - ①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를 각각 핵심어로 선택합니다.
 - ② 비주얼 싱킹 레이아웃을 선택(플로우형, 버블형, 트리형 등)합니다.

플로우형	버블형	트리형

③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전염병의 발병시기, 원인, 사망자수(치사율), 확산경로(경과), 백신& 예방,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글과 이미지로 시각화 합니다.)

• 비주얼 싱킹 활동 공감 나누기

- 모둠원끼리 내용을 발표하고 잘 표현된 부분에 공감의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모둠별로 색연필, 싸인펜, 마카펜 등을 준비합니다.
- 비주얼싱킹 수업이 처음이라면 비주얼싱킹 시각언어 연습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비주얼 싱킹 소개 동영상과 비주얼싱킹 시각 언어 연습용을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 개인별로 활동지에 비주얼싱킹을 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4절지를 주고 공동활동을 진행하면 협동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지금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스페인 독감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열, 통증 등 가벼운 감기 증상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피가 섞인 기침을 하는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또한 변형이 일어난 코로나바이러스며 이전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년만에 되풀이 되는 스페인 독감의 악몽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스페인독감을 잘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스페인 독감의 특징 정도만 살펴보았지만 이후 관심을 갖고 스페인 독감이 미친 영향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문제들과 비교 분석하는 수업으로 심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기

- KB국민은행 공식블로그, “100년만에 되풀이 되는 악몽? 코로나19로 다시 보는 스페인 독감”, <https://blog.naver.com/youngkbblog/221990744751>

활동지 1.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탐구하기

[자료1] 페스트 (흑사병)



▲ 아르놀트 뵘클릭작 '페스트'
1898, 바젤 미술관 소장

흑사병(페스트, Pest)은 13~14세기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악의 전염병이에요.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며 죽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Black Death)'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들쥐, 다람쥐 등 야생 설치류에 사는 쥐벼룩이 페스트균을 전염시켜 생기는 병으로, 전염성이 대단히 높아요.

처음 두 달 동안은 '페 흑사병'이 찾아왔어요. 고열과 함께 거드랑이, 사타구니의 림프종에 달걀만한 종기가 생기고 거기서 고름이 흐르는데, 발병 5일 내에 죽음에 이릅니다.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해 서양에서는 빅 데스(Big Death)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흑사병은 원래 중국 서남부 지방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흑사병이 어쩌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번째는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할 때 페스트균도 따라 이동했다는 거예요. 몽골제국인 킵차크의 군대가 흑해의 항구도시 카파를 공격할 때, 흑사병으로 사망한 자국 군인들의 시신을 성안으로 던져 흑사병이 번졌다는 거예요. 몽골제국이 일종의 세균전을 펼친 것이죠.

두번째는 우리 예상과 달리 당시 아시아와 유럽은 무역이 성행했는데,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해 전파됐다는 거예요. 세번째는 아시아와 유럽 간에 무역을 하던 바닷길을 통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닷길을 통한 전파였어요.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이미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시신으로 가득했죠.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배 안에 쥐들은 육지로 달려갔고 곳곳에 흑사병을 퍼뜨렸지요.

[출처] 진로진학 교육신문 [에듀진], "[톡톡 라이브러리 | 인문] 세계사를 뒤바꾼 '흑사병' 중세 유럽을 무너뜨리다!", <https://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7>

[자료2]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1918년 여름 악성 독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해 이 시기를 발생 시기로 보고 있다. 1918년 초여름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해 8월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때부터 독감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치명적인 독감으로 발전했다.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귀환하면서 9월에는 미국에까지 확산 됐다. 미국은 스페인 독감으로 총 50~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많은 원주민 부족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처럼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 유행으로 번져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되고 5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됐으며 감염된 이들 중 14만 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아니었지만 스페인 언론이 이 사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됐고, 한국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렸다. 14일 현재 약 20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약 75만 명이 사망했다."

[출처] 서울신문, "1918년 신문에 실린 스페인 독감 예방수칙...코로나19와 비교해보니", <https://www.seoul.co.kr>

[자료3] 코로나19 국내/해외 발생현황 및 특징

- 국내 : 질병관리청, <https://www.cdc.go.kr/>
- 해외 : 세계보건기구(WHO), <https://covid19.who.int/>

코로나19의 특징

병원체	SARS-CoV-2: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치료: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없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2020년 9월 기준)

Q1. [자료1], [자료2], [자료3]를 바탕으로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구분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발병시기			
발병원인			
증상			
사망자수(추정)			
치료 및 예방			

[자료4] 카드 뉴스로 보는 코로나19의 영향



[출처] 경기도교육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품앗이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법무부

Q2. [자료4]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정리해 보세요.

활동지 2.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기



Visual thinking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페스트, 스페인독감, 코로나19)

- ☺ 생각을 SHOW하라! “글”과 “이미지”를 함께 이용해 정보와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학습주제(내용) 핵심어 표시하기- 레이아웃 생각하기-시각적으로 표현하기-활동 공감 나누기(발표)

Blank area for visual thinking activity.

02 디자인 싱킹을 통한 팬데믹 시대의 시민성 함양

교수학습법

디자인 싱킹 (design thinking)은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 중심적 방법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학습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단계별 방법은 공감하고, 특정 짓고, 생각하고, 모형을 만들어보고,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1단계 : 공감(Emphasize)

상대방과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관찰하기, 또는 직접 경험해 보기를 통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단계 : 정의(Define)

공감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문제해결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며, 문제의 정의를 위해서는 첫째,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인가? 둘째, 가치 있는 문제인가? 셋째,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이 동반됩니다.

3단계 : 아이디어(Ideate)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미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시제품 만들기(Prototype)

짧은 시간 내에 값싼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작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에게 빠른 핵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빠르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5단계 : 테스트(Test)

실제로 실행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어떠한 앞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하기는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해보고 그 안에서 당사자들의 가감 없는 피드백을 받아 보아야 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생각을 디자인하다 : 디자인 싱킹 1" by 김미진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https://www.crezone.net/?page_id=125102&c=mn&m=V&n=2311&search_key=&search_word=¤t_page=4

활동목적

예방수칙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성을 함양합니다.

활동방법

- [자료1] 영상을 보여주고 [자료2]와 [자료3]을 읽고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
 - 역사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의 한계를 토론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 제시된 [자료1,2,3]을 토대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페스트, 스페인독감, 코로나19)의 예방수칙을 비교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 예방수칙을 정리하면서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합니다.
 -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주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마스크 착용 거부,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등) 일부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예방수칙을 지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디자인싱킹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시민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현재 제시된 예방수칙을 지키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디자인싱킹 하도록 합니다.
 -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단계별로 디자인싱킹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 디자인싱킹한 내용을 모둠원끼리 공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론합니다.
 - 4단계(프로토타입)는 이미지화(그림)으로, 5단계(테스트)는 모둠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4단계, 5단계를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완성된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으로 합니다. 학습환경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교사를 위한 팁

디자인싱킹 단계별 팁

- 2단계 : 정의(Define)는 공감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문제해결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 중 진짜 문제를 찾아내어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합니다.
- 3단계 : 아이디어(Ideate)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판단을 중지할 것,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할 것,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 공동체 내에서 동의 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미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단계 : 시제품 만들기(Prototype)은 짧은 시간 내에 값싼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작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에게 빠른 핵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빠르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의 이미지화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5단계 : 테스트(Test)는 실제로 실행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어떠한 앞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장단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디자인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디자인의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진행합니다.

디자인싱킹 주제 선정

- 예시자료로 제시한 마스크 디자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소통이 편안한 방 디자인 외에도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디자인 하도록 합니다.

[출처]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생각을 디자인하다 : 디자인 싱킹 I” by 김미진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https://www.crezone.net/?page_id=125102&c=mn&m=V&n=2311&search_key=&search_word=¤t_page=4

더 알아보기

- EBS 지식채널e, “[코로나 단상] 악수의 종말”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20283579>
- EBS 지식채널e, “[노스트라다무스, 전염병을 예방하다]”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20270746>
- 제니퍼라이트 저, 이규원 역,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2020, 산처립)

활동지 1.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 및 불편함 탐색하기

[자료1] 조선의 감염병

- “조선의 감염병” 영상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20266173>

[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식채널e, “조선의 감염병”

[자료 2] 노스트라다무스, 전염병을 예방하다

“예언자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에 대활약한 의사였다. 14세기, 세계 최대 전염병인 흑사병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채찍질을 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이상행동을 벌인다. 이에 맞선 노스트라다무스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는데… 훗날 ‘위생’의 개념이 된 그의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 거리의 시체 치우기, 더러워진 리넨 버리기, 물 끓여 마시기, 목욕하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마법의 약(비타민 C가 풍부한 ‘장미의 약’) 먹기 등²

[출처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식채널e, “노스트라다무스, 전염병을 예방하다”,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20270746>

[출처2] 제니퍼라이트 저, 이규원 역,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2020, 산처럼)

[자료3] “1918년 신문에 실린 스페인 독감 예방수칙…코로나19와 비교해보니”

높은 전파력과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스페인 독감과 비교되곤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발생해 2년간 전 세계인을 괴롭혔다. 각국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예방법과 생활수칙을 정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지난 6월 일본에서는 스페인 독감 예방책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당시 미국의 ‘더글러스 아일랜드 뉴스’에 실렸던 스페인 독감 예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신문에 실린 ‘지켜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개인 건강관리, 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격리 수칙 지키기,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가기 등 코로나19를 위해 쓰였다고 해도 될 만큼 동일한 수칙을 내세우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1918년 신문에 실린 스페인 독감예방수칙…코로나19와 비교해보니”, <https://www.seoul.co.kr>

[자료 4] “침 뱉고 때리고……마스크 착용 거부 잇따라”

- “침 뱉고 때리고……마스크 착용 거부 잇따라”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uSHcmVzZ4s>

[출처] KBS 뉴스, “침 뱉고 때리고……마스크 착용 거부 잇따라”, <http://news.kbs.co.kr>

Q1.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Blank area for answer to Q1.

Q2. 현재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Blank area for answer to Q2.

Q3. [자료1], [자료2], [자료3] 를 토대로 세계사를 바꾼 감염병의 예방수칙의 공통점을 적어보세요.

Blank area for answer to Q3.

Q4. [자료4] 영상을 보고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이유를 써보세요

Blank area for answer to Q4.

활동지1 예시 답안

Q1: 보건과 의료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안되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등)

Q2: 치료제와 백신개발, 예방수칙 잘 지키기

Q3: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개인 건강관리, 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격리 수칙 지키기,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가기 등

Q4: 지도자가 쓰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자유권 침해, 마스크의 방역 효과 믿지 못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나뉨

활동지 2.

예방수칙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싱킹 하기

[디자인싱킹 예시자료 소개]

01. 대안적 약속

- 문제 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져서 세균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신체와 다른 대부분의 부분보다 더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결책 (예시)
사람들이 만날 때 약속하게 되어야 합니다.
- 이 솔루션의 문제점
어쩔지 않을 정도로 빈번한 방식으로 서로 인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서로 맞지 않고 약속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 2]
출처 : 이미지 투데이 (<http://www.imagetoday.co.kr>)

02. 기침 잡기

- 문제 정의
사람들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세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해결책 (예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입자가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 이 솔루션의 문제점
마스크가 불편하고 귀의 코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기침이나 재채기가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는 더 편안한 방법을 디자인해 봅시다.



[그림 3]
출처 : 이미지 투데이 (<http://www.imagetoday.co.kr>)

[출처]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CoronaVirus 3D 디자인 싱킹 과제 10가지" by 박혜리 (University of Georgia 박사과정), https://www.crezone.net/?page_id=125102&c=mn&m=V&n=2473

Q1.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나열해 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1.

Q2.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싱킹 해보아요.

〈디자인싱킹 1〉	〈디자인싱킹 2〉
• 문제적 정의(2단계)	• 문제적 정의 (2단계)
• 해결책(3단계)	• 해결책 (3단계)
• 이 솔루션의 문제점(4단계)	• 이 솔루션의 문제점 (4단계)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5단계)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5단계)

활동지2 예시 답안

Q1: 하루종일 마스크 쓰니 숨막히고, 귀도 아픔,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니 우울함 증가

Q2:

〈디자인싱킹 1〉	〈디자인싱킹 2〉
• 문제적 정의(2단계) 예)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	• 문제적 정의 (2단계) 예) 감염확산 차단
• 해결책(3단계) 예) 마스크 착용	• 해결책 (3단계) 예) 사회적 거리두기
• 이 솔루션의 문제점(4단계) 예) 귀가 아프고, 피부 트러블 발생, 숨쉬기 곤란, 나쁜 인식	• 이 솔루션의 문제점 (4단계) 예) 코로나 블루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5단계) 예) 마스크를 디자인 하기	•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5단계) 예) 코로나 블루 해결하기 위한 소통방 디자인하기

Q3. 디자인싱킹한 내용은 바탕으로 모둠원에게 설명하고 장단점을 토론하여 디자인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만들어보아요.

디자인싱킹 I
마스크디자인

디자인싱킹 II
코로나블루 극복 소통방
디자인

03 ICT를 활용한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

교수학습법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자체는 학습법이 아니지만, 21세기의 학습과 교육에서 ICT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 또는 휴대전화 어플(VLLO 또는 Viva Video 등)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활동목적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을 통해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민성을 함양합니다.

활동방법

- [자료1] 생활속 거리두기 공익영상을 시청합니다.
- 모둠을 구성하고 [자료2] 코로나 예방수칙을 탐구합니다.
-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로 계획서에 따라 UCC를 제작하고 편집합니다.
- 전체 학생이 모여서 모둠별로 제작한 UCC를 보고 좋은점과 느낀점을 정리합니다.
- 수업을 통해 느낀점과 세계시민으로서 다짐을 적도록 합니다.
- 모둠원끼리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을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UCC 제작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손쉬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영상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해도 좋습니다.
-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현대 팬데믹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과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활동지 1.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하기

[자료1]

[생활 속 거리두기] 공익영상 "변화를 낳는 변화_가족편" - 질병관리청

http://www.cdc.go.kr/gallery.es?mid=a20503030300&bid=0004&act=view&list_no=144707

[자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지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www.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출처] 질병관리청

‘슬기로운 방역생활’ UCC 제작 계획서

제목					
주제					
장면 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악					
제작 일정 및 역할 분담	사진촬영 (장소, 일정, 카메라)				
	편집 및 제작 (장소, 일정)				
	역할분담	모듬장 음악 : 자막 : 편집 :			

※ 모듬명 :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4

팬데믹과 글로벌 거버넌스

최인선

04

팬데믹과 글로벌 거버넌스

학습목표

-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과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 모의 세계백신보급 회의를 통해 상호존중과 합의 과정을 경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키워드

-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 칸트의 의무론, 배분적 정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인권, 보건의료, 롤스의 정의론, 무지의 베일

핵심역량

- 지구촌 이슈(인권, 정의, 팬데믹, 글로벌거버넌스)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윤리, 통합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한눈에 보기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팬데믹과 연대의 필요성 탐구	도입	바다에 떠도는 크루즈 선 • 스토리를 통해 팬데믹 상황 공감하기	스토리텔링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연대의 필요성 인식	100분
	전개	윤리적 측면에서 연대의 필요성 탐구 • 칸트의 의무론,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통한 연대의 필요성 탐구 • 바다에 떠도는 크루즈선 스토리 재구성		
	정리	재구성한 스토리 발표 및 정리		
직소 기법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념 및 역할 탐구	도입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및 필요성 탐구 • 영상, 읽기자료	직소 기법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탐구	100분
	전개	직소 활동 •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탐구		
	정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탐구내용 발표 및 정리		
PMI를 활용한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 (모의 세계백신 보급회의)	도입	윤리적 측면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이해 • 룰스의 정의론,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역식	모의 세계백신보급 회의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 이해	150분
	전개	모의 세계백신보급 회의의 활동 • 모듬구성 및 역할분배 • 세계백신보급원칙(방침)세우기 • PMI기법 적용한 분석 및 수정 • 모듬별 회의결과 정리		
	정리	모듬별 회의결과 발표 및 정리		

0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팬데믹과 연대의 필요성 탐구

교수학습법

스토리텔링을 통해 팬데믹 상황을 가정하고 윤리적인 측면의 연대의 필요성을 학습한 후에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구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여러 경험에 대한 일관성을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세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story(이야기)+'tell(말하다)+'ing(진행형)'의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ing(현재진행형)이 붙어있으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행상황이 강조됩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를 통해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이 아니라 일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줄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전달자의 생각(가치, 메시지)을 전달하면서 감정의 오묘한 맛을 엮어 놓은 기술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Storytelling - 스토리텔링"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83084&cid=58439&categoryId=58439>

활동목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방법

- [자료1] 을 읽고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
 - A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선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모둠원과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 배에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감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합니다.
- 윤리적인 측면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덕적 의무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 [자료2]를 읽고 질문에 답하면서 칸트의 의무론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자료3]을 읽고 질문에 답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자료1]의 스토리를 A국가의 국민과 A국가의 대통령 중 입장을 선택하여 뒷 이야기를 쓰도록 합니다.
 - 재구성한 스토리를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고 모둠별 대표 1명씩 발표하도록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이 제시한 스토리에 공감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합니다.
- 칸트의 의무론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 A국가 국민과 A국가 대통령 중에서 입장을 선택하여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가 연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설명하도록 합니다.(차시활동 예고)

더 알아보기

- EBS지식채널e, “1/8 조각케이크 1/8 조각 케이크; 여기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누가 갖는 게 가장 공정할까?”,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0967852>
- 외교부,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제2편 공동체와 시민사회 - ‘마이클 샌델’, <https://www.youtube.com/watch?v=SZ-3qDFQJjI>
- EBS지식채널e, “무엇이 옳은가? 칸트의 선택 도덕과 범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도덕적 삶이란 무엇인가”,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20267653>

활동지 1.

스토리텔링을 통한 연대의 필요성 탐구하기

[자료1] 바다를 떠도는 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을 거부해도 되는가?

크루즈 선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배가 몇 나라를 거쳐 A국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해 많은 승객이 고열, 폐렴, 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증상이 심한 환자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선장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하고 승객을 격리시키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족한 의료 자원, 밀폐된 시설 등 취약한 여건 탓에 모든 승객이 위험에 빠진 급박한 상황이 됐다. 선장은 A국가에 비상사태를 알리고 환자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모든 승객이 하선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A국가도 전염병이 확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의료 인력, 병원 시설 등은 어느 정도 여유로워서 환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배에는 A국가의 국민을 포함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렇다면 A국가는 이런 하선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승객의 하선을 거부해야 하는가? A국가 국민만 하선을 허용해야 하는가? A국가의 해외 동포도 하선을 허용해야 하는가? A국가하고 가까운 국가들의 승객도 하선을 허용해야 하는가? 모든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야 하는가?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미진, 2020)

Q1. 내가 A국가의 국민이라면 다음 중 어떤 승객까지 하선을 허용할 것입니까? 선택지에 표기하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 A국가 국민:
- A국가의 동포:
- A국가와 가까운 승객:
- 모든 승객:

Q2. 만약 여러분이 배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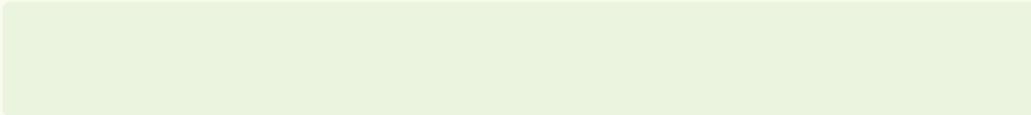
- A국가 국민:
- A국가의 동포:
- A국가와 가까운 승객:
- 모든 승객:

[자료2] 칸트의 의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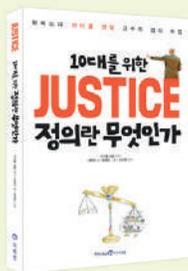
칸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의무라고 봤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거나 그런 도움이 내게 나중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은 아니다. 돕는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옳은 일이며, 우리는 그런 옳은 일을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런 윤리적 견해를 '의무론'이라고 부른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곤경에 빠진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게 된다. 그 사람이 아주 친한 이웃인지, 아니면 같은 국가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낯선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곤경에 빠져 있고, 우리에게는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든 다른 나라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어야 한다.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랜데믹 (이매진, 2020)

Q1. 칸트는 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나요?



[자료3]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는 보통, 살인 용의자는 반드시 신고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고해야 할 대상이 가족이라면 어떡해야 할까요? 마치 윌리엄 벌저와 데이비드 카잔스키처럼 말이예요. 윌리엄 벌저는 대학 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19건의 살인 혐의를 받은 형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드 카잔스키는 테러리스트 '유나버머'였던 형을 신고했어요. 유나버머는 미국에서 17년 동안 과학자를 비롯한 학자들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보낸 연쇄 폭발물 테러리스트로 위험인물이었으니까요. 이후 윌리엄 벌저는 대학 총장직을 사퇴했고, 데이비드 카잔스키는 형의 사형을 막으려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단체를 위해 일했어요. 또 형을 대신해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사죄를 했지요.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의 의무에 대해 고민하게 해요.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야 하는 연대의 의무가 충돌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대의 의무를 따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벌저 형제와 카잔스키 형제의 이야기처럼요. 윌리엄 벌저는 가족에 대한 충성을 먼저 생각했고, 데이비드 카잔스키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충성한다는 선택을 했으니까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내 부모와 형제를 보호한다는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무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의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한 개인으로서의 이익과 공동체의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면 어느 쪽에 충성해야 할까요? 어느 쪽에 충성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일까요? 개인은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공동체 중심의 생각을 하더라도, 각 개인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건 아니예요. 다만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그 선택의 도덕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단순히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 없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원칙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좋은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미래엔아이세움, 마이클 샌델

Q2. 윌리엄 벌저와 데이비드 카잔스키의 선택 중 어느 쪽을 지지하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자료1]의 A국가의 국민과 A국가의 대통령 중 입장을 하나 선택하여 뒷이야기를 써보세요.

(포함내용: 하선 대상, 구체적인 하선 방법, 치료와 돌봄 방법 등)

Q4. 모둠별로 작성한 스토리를 나누고, 모둠별로 베스트를 선정하여 전체 학생에게 발표해요.

교수학습법

직소 (jigsaw) 기법 (과제분담학습)은 엘리엇 에런슨과 그 팀에 의해 개발된 학습 모형입니다. 한개의 주제를 실패로 자르듯이 여러 개로 나누어 팀별로 학습한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과제분담학습 또는 직소 협동학습 이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를 5-6명으로 이루어진 모둠의 구성원 수에 맞게 소주제로 나눈 뒤, 구성원들이 각자의 소주제를 분담하여 공부한 이후 전문가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가르치고, 다른 소 주제에 대해서는 집단의 다른 동료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수업 형태로서, 개인의 책무성을 중시하고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소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참고서적이나 정보검색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조사·탐구·실험 등의 방법 및 정보 해석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책무성을 극대화시킨 모형 특성상, 조별과제의 전형적 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 개입이 과하면 학생 자율성을 베이스로 하는 모형의 목적에 반하게 되고, 개입이 너무 적으면 학생들이 본래 배워야 하는 내용을 놓치고 넘어가기 쉬워, 보기보다는 교사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직소", <https://namu.wiki/w/%EC%A7%81%EC%8F%98>

활동목적

직소 기법을 활용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탐구해 봅니다.

활동방법

- [자료1]과 [자료2]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을 학습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 직소 기법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탐구
 -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주요 기구들을 꽃으로 표현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자료2]에서 제시한 영상자료를 참고하여 크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자선기금 등으로 구성됨을 설명합니다.)
 - [자료3] 중에서 네트워크 유형별로 하나씩 총 5가지 학습할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선정합니다.
 - 주제 선정시 모듬원의 수만큼 선정하여 모듬원 모두가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정된 주제 중에서 모듬원이 관심있는 주제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모여(전문가 그룹) 관련 주제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선택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학습을 합니다.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원래 모둠(홈그룹)으로 돌아갑니다.
- 홈그룹원에게 자신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머지 모둠원은 질문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과제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 학습방법을 이해하도록 전문가 그룹 활동 장소를 따로 지정해서 마련해줍니다.
- 모둠별로 자료검색이 자유롭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해줍니다. (태블릿, 메모지, 관련 도서 및 자료)
- 전문가 그룹 활동(검색시간, 정리시간), 홈그룹 활동(발표, 질문시간)을 정해주어 학생 모두가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더 알아보기

- 이승주(2017). 초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EAI이슈브리핑, 1-6
- 최은경, 이종구(2016). 2000년대 글로벌 전염병 거버넌스의 변화. 의과학, 25(3), 489-517
- 김의영(2013).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구시민사회 글로벌회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1(1), 139-180
- 조한승(2017). 백신사업 사례를 통해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상호관계 연구: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 기사: 코로나 백신개발·공급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는 무엇?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5109>

활동지 1.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탐구하기

[자료1]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시민사회

‘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이시스(crisis)’의 어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비에 놓여 있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지구촌 시민들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치명적인 질병 앞에 선 글로벌 시민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적 발전이나 아니면 각자도생과 탈세계화이나 하는 기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실은 맞지만, 서로 관계를 단절하면서 상대방을 경계하고 적대시한다고 해서 감염병은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당장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은 일시적일 뿐, 오히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감염병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네트워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Q1.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요?

Q2.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료2]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예고 없이 출현하여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 증대되면서 전염병 문제가 단순히 한 국가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이제 질병 관리의 다자간 협력, 즉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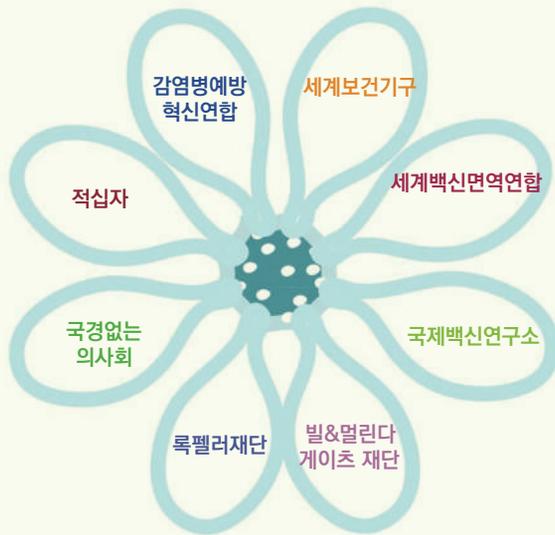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자선기금 등 비국가 행위자를 또한 주요 참여자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 국제기구**
WHO는 UNDP, UNICEF, UNFPA 등 국제연합 산하기구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 비정부기구(NGO)**
국경 없는 의사회, 적십자 등의 비정부기구는 자발적인 보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자선기금**
록펠러 재단, 게이츠 재단 등은 백신 개발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상] 외교부, "[인간 vs 바이러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0bRLV4-DnL0>

Q3.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를 적어보세요.

[자료3]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 국제기구
 -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민간 국제기구
 -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 국제백신연구소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 자선기금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록펠러재단 (Rockefeller Foundation)
- 비정부기구 (NGO)
 - 국경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
 - 적십자 (Red cross)
- 글로벌 협력관계
 - 감염병예방혁신연합 (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Q4. 현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흥미로운 주제 5가지를 함께 선정하여 모둠원 한 사람씩 주제를 선택하여 써보세요. (유형별로 한가지 이상 선택하고 학급전체가 5가지 주제를 공통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선택주제					
모둠원					

Q5. 같은 주제를 선택한 모둠원들끼리 전문가 그룹으로 이동하여 다음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탐구활동을 해보세요

학습주제:	전문가그룹원:
1. 언제 조직되었나요?	2. 왜 만들어졌나요?
3.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4. 무슨 활동을 하나요?
5. 현재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인 측면>	
<한계점 및 극복방안>	

Q6. 처음 모둠으로 돌아가서 전문가 그룹에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세요.

03

PMI를 활용한 글로벌 거버넌스(모의 세계백신 보급회의) 활동

교수학습법

PMI(Plus, Minus, Interest)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더 새롭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큼 타인의 생각과 주장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TV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 채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타인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판단 없이 무분별한 비판 및 악플을 게재하는 등 이기적·자기 중심적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PMI에서는 한 측면을 평가할 경우, 다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 측면에 쏠려 평가하는 폐단을 막고,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새롭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아이디어를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PMI 활동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목적

모의 세계백신보급 회의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자료1]을 함께 읽고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 [자료2]을 함께 읽고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 모둠을 구성하고, 활동지를 모둠별로 배부합니다.

① 모둠을 구성하고 모듬원의 역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 모듬은 4개, 모듬원은 5인으로 구성합니다.
- 먼저 모듬 1, 2와 모듬 3, 4 두 그룹에게 서로 다른 조건을 제공합니다.

② [자료2]를 제시할 때 모듬 1, 2는 자본, 의료, 백신연구, 코로나 대응 자료를 빈칸으로 제공합니다.

- G, C, E, D, W가 적힌 종이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듬 3, 4의 모듬원은 [자료2]에 제시된 해당 국가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 모의 세계 백신 보급 회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 ① W(사회자)는 G, C, E, D(해당국) 대표들에게 1차 발언 기회를 줍니다.
 - 백신 보급 대상국과 보급기준과 그 이유를 발언하도록 합니다.
 - 토의를 거쳐 1차 발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 ② W(사회자)는 G, C, E, D(해당국) 대표들에게 2차 발언 기회를 줍니다.
 - 백신이 추가 개발되어 추가 보급에 대한 원칙 및 이유를 발언하도록 합니다.
 - 토의를 거쳐 2차 발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 ③ W(사회자)는 G, C, E, D(해당국) 대표들에게 3차 발언 기회를 줍니다.
 - 비회원 보급 기준에 대한 원칙 및 이유를 발언하도록 합니다.
 - 토의를 거쳐 3차 발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 채택된 세계 백신 보급 원칙 분석 및 수정 활동을 진행합니다.

- ① 채택된 원칙1을 활동지에 P(PLUS 장점), M(MINUS 단점), I(INTEREST 흥미로운 점)을 자유롭게 정리합니다.
- ② PMI 활동 후 수정된 원칙을 기록합니다.
- ③ 같은 방법으로 원칙3까지 수정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지에 모의 세계 백신 보급 회의 원칙을 기록합니다.

- 모둠별 회의 결과 발표 및 비교정리 합니다.

- ① 모둠별로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모둠은 활동지에 정리하며 경청하도록 합니다.
- ②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모둠1, 2의 결과와 모둠3, 4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특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 ③ 활동을 통해 느낀점을 기록하고 모둠원끼리 나누도록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치명적인 질병 앞에 선 글로벌 시민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적 발전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과 탈세계화이냐 하는 기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관계를 단절하면서 상대방을 경계하고 적대시한다고 해서 감염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감염병을 극복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학생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모둠 구성할 때,

- 모둠1, 2 그룹과 모둠3, 4 그룹이 조건이 다를 수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 모둠원 역할 선정시 컬러 스틱을 이용해서 뽑기 활동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 G, C, E, D 국가가 현재의 특정국을 상정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PMI 활동시,

- 학생들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즉흥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단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장점과 흥미로운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평가하도록 하여 새롭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찾도록 지도합니다.

활동지 1.

윤리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모의 세계백신 보급회의 활동

[자료1] 롤스의 정의론과 무지의 베일

“롤스는 정의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이때 사회 구성원은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모두 알고 있지만 자신의 출신 배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위치,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이다. 자신의 이익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무지의 베일” 이세정 논설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372676>

Q1.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Q2.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2]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해요.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삶을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모두에게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공동선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좋은 삶을 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둘째, 경제적인 수치로 가치를 계산하는 시장주의와 시장 중심적 사고를 경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겠지요. 셋째,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사회 공동체 연대와 민주 사회 시민의 미덕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로 이끌어야 해요. 흔히 법과 정치는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법과 정치가 도덕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더라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여 합의에 다다른 정치를 만들어야 해요.

© 미래엔아이세움, 마이클 샌델

Q3.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전제 하였나요?

Q4.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료3] 모의 세계 백신 보급회의 참가국

구분	자본	의료	백신연구	코로나대응
G	★★★★★	★★★★★	★★★★★	★★★
C	★★★★★	★★★★★	★★★★★	★★★★★
E	★★★★★	★★★★	★★★★★	중식선언
D	★	★	★	★
W	회의 진행과 기록			

[모의 세계 백신 보급 회의] 시나리오

팬데믹에 처한 세계가 공조하여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임상시험만 남은 상태입니다. 개발된 20억개의 백신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자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세계 백신 보급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3가지 주제로 각국의 대표들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급대상국, 보급기준 및 비율
- ② 추가 확대 보급 원칙
- ③ 비회원국가 보급기준

의제 : 세계 백신 보급 원칙(방침)

- 일시 :
- 사회자 :
- 모둠원 (해당국) :

국가	G	C	E	D
1차 발언 보급대상국, 보급기준 및 비율, 이유				
<p><1차 발언 예시> 회원국 대상으로 국가 인구수의 20% 공급, 이유는 초기 백신 개발 양이 20억개로 세계인구의 약 33%가량으로 회원국에게 신속하고 평등하게 보급하기 위해서</p>				
2차 발언 추가보급, 이유				
3차 발언 비회원국가 보급기준, 이유				

▣ 채택된 원칙 분석 및 수정

원칙 1.	〈예시〉 회원국 대상으로 국가 인구수의 20% 공급한다(C) (수정) 회원국 대상으로 국가 인구수의 25% 공급한다
P(장점)	
M(단점)	
I(흥미로운 점)	
원칙 2.	
P(장점)	
M(단점)	
I(흥미로운 점)	
원칙 3.	
P(장점)	
M(단점)	
I(흥미로운 점)	

▣ 모듈별 회의 결과 정리

세계 백신 보급 원칙(방침)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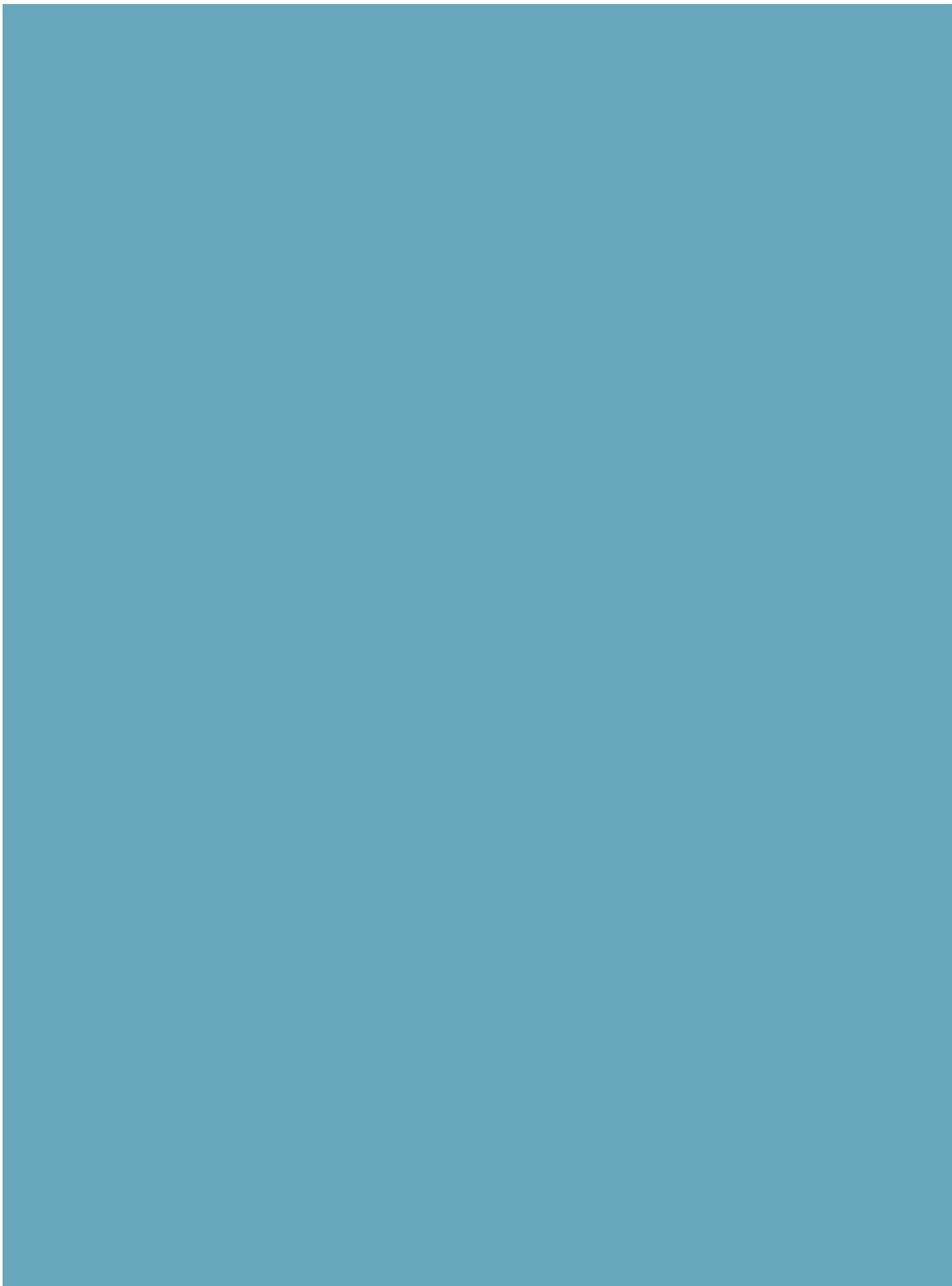
▣ 모둠별 회의 결과 발표 및 비교정리

구분	무지의 베일을 쓴 그룹		무지의 베일을 안 쓴 그룹	
	모둠1	모둠2	모둠3	모둠4
회의 결과				
특징				
느낀점	G(모둠원) :		C() :	
	E() :		D() :	

활동지 1 예시답안

Q3. 공동체 의식

Q4.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더라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여 합의에 이르는 정치를 위해 노력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5

팬데믹과 인권

최윤경

05

팬데믹과 인권

학습목표

- 코로나19 이후 인권의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인권 관련 기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사건을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 팬데믹 시대 인권문제와 안전문제가 부딪칠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다.

키워드

-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인권선언

핵심역량

- 보편적인 핵심가치(인권, 관용)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교과

- 영어, 사회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거꾸로 교실을 통한 팬데믹 시대의 인권 탐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에 배울 영어 본문에 대한 디딤영상을 시청하고 본문 이해 문제지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 유엔에서 말하는 코로나 19 시대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짧은 글을 읽고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이 부딪치는 경우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5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조원들과 토론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후 영어 본문내용과 동영상을 보고 배운 소감문 작성하기 		
갤러리워크 (또는 패들렛)를 통한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인권 선언 탐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들렛 (또는 인쇄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권선언보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읽고 조원들과 토론할 수 있다. 	2차시 블록수업 (10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사례 기사를 분석하는 학습지를 풀고 세계인권선언과 연결해 분석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원들과 활동지에 분석하고 적은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패들렛에 댓글 달기 		
조별 협동활동으로 보석맵 쓰기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의견 교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로 보석맵 만들기, 자기 별명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원들과 함께 보석맵을 활용해 인권과 안전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다. 	5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석맵에 팬데믹 시대의 중요한 인권, 친구의 의견에 대한 이유, 인권과 상충되는 안전 이슈 쓰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원들과 그렇게 쓴 이유를 나누고 활동 소감 문 쓰기 		

01 거꾸로 교실을 통한 팬데믹 시대의 인권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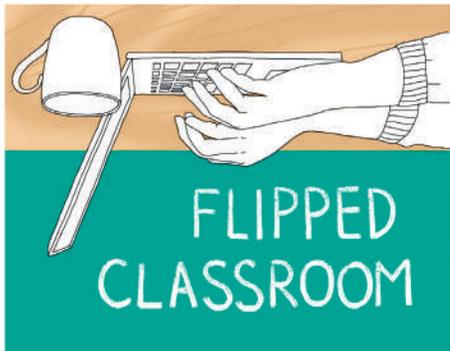
교수학습법

Flipped Classroom은 한국에서는 ‘거꾸로 수업 (교실)’으로 불리며 전형적인 학습 방법과는 정반대인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기 자신의 계획에 맞춰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2007년, 미국 고등학교의 화학교사 두 명이 수업 결손 학생을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수업 장면을 찍어서 제공했던 것에서 출발한 거꾸로 교실의 아이디어는 수업할 때 부족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사전 학습한 뒤 동영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보고, 학교에서는 질의응답, 토론, 실험 등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교실의 운영되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사가 수업 내용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한 시간의 수업 내용 중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간추려 만듭니다.
- ② 학생은 수업 전에 미리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해도 됩니다.
- ③ 수업은 참여식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핵심 내용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활동, 질문 및 토론, 의견 발표 등 다양한 모둠 활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합니다. 과목의 종류에 따라 이런 심화된 학습은 다양합니다.
- ④ 평가와 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치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거꾸로 교실이란 무엇인가?”, <https://if-blog.tistory.com/6527>



1. 영상 - Flipped Classroom(거꾸로 교실) 동영상

활동목적

조원들과 함께 영어로 된 짧은 글을 읽고 유엔에서 말하는 코로나19 시대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 대신 수업 전 혹은 수업 시작 때에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수업 동영상을 미리 보면서 이미 나누어준(혹은 구글 클래스룸에 사본파일로 올려놓은) 자신의 활동지에 조원들과 필기를 합니다.
- 그리고 본문 퀴즈에서 자기 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함께 문제를 풀니다.
- 수업시간에는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에 의해 본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문제 풀 학생들과 이야기해 주어진 모든 문제를 구글 클래스룸과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해결합니다.



[출처] 구글(Google), Google Classroom 소개,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classroom/?modal_active=none



[출처] 구글(Google), Google Drive 소개, <https://www.google.co.kr/drive/apps.html>

교사를 위한 팁

- 학생 수준에 따라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별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글 공유드라이브를 활용해 본문 이해를 위한 문제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 거꾸로 수업 동영상을 수업 전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미리 올려놓고 수업 시간 내에 내용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미리 보고 연습하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내용 이해 문제를 2개의 조에 동시에 배당해 서로 풀 문제를 발표하고 답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유엔에서 언급한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이 부딪치는 사례가 없는지 토론해 보고 그러할 경우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학생들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나누도록 안내합니다.

2. 토론영상 - 코로나19 속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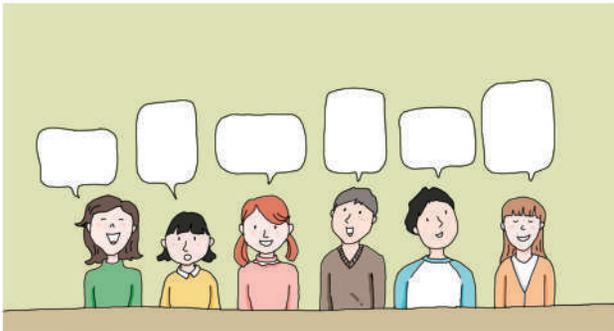
활동목적

동영상을 보고 본문과 연결해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이 부딪치는 경우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영상소개]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속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s://youtu.be/RFmxuWgBuyo>

-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내용을 통해 유엔의 인권에 대한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인권, 아시아인 혐오, 확진자 사생활 침해, 시각장애인과 온라인 강의 등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 민감성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인권 감수성을 키워 볼 수 있습니다.
- 수업시간에 함께 동영상을 봅니다.
- 공유드라이브에 올린 학습지를 개인별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영어표현은 사전을 찾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자신의 생각은 한글로 쓰게 합니다.
- 친구들의 생각을 읽고 피드백(Feedback)을 씁니다.



교사를 위한 팁

-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내용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2번 보여줍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개인별로 이어폰을 준비하게 해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보며 내용을 영어 1-2문장으로 요약하게 합니다.
-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문장단위로 돌리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학생 개인별 활동지를 구글 공유드라이브에 넣어 조원들끼리 서로의 활동지에 들어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활동지 1.

Spotlight: Human Rights at the Frontline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y The United Nations (April, 2020)

Three rights are at the *frontline in the current pandemic:

Right to life and duty to protect life (생명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

We are *combating COVID-19 to protect the lives of all human beings. Invoking the right to life reminds us that all States have a duty to protect human life, including by *addressing the general conditions in society that give rise to direct threats to life. States are making extraordinary efforts to do this, and it must remain the primary focus.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health care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의료에 대한 접근권)

The right to health is *inherent to the right to life. COVID-19 is testing (to the limit) States' ability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Every human being is *entitle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conducive to living a life in *dignity.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social or economic status, should have access to the health care they need.

Historic *underinvestment in health systems has weakened the ability to respond to this pandemic as well as provide other essential health services. COVID-19 is showing that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must become an *imperative. Those States with strong and *resilient healthcare systems are better equipped to respond to crises. Health-care systems all around the world are being stretched, with some at risk of collapse. UHC promotes strong and resilient health systems, reaching those who are vulnerable and promoting pandemic preparedness and prevention. SDG 3 includes a target of achieving UHC.

The central challenge to freedom of movement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과제)

Controlling the virus, and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means breaking the chain of infection: people must stop mov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e most common public health measure taken by States against COVID-19 has been *restricting freedom of movement: the *lockdown or stay-at-home instruction. This measure is a practical and necessary method to stop virus transmission, prevent health-care services becoming overwhelmed, and thus save lives. However, the impact of lockdowns on jobs, livelihoods, access to services, including health care, food, water,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safety at home,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and family life can be severe. As the world is discovering, freedom of movement is a crucial right that facilitates the enjoyment of many other rights.

[출처] The United Nations, "Covid 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https://www.un.org/victimsofterrorism/sites/www.un.org.victimsofterrorism/files/un_-_human_rights_and_covid_april_2020.pdf

[주요단어]

*frontline 최전선 *combat ~와 싸우다 *address 발표하다 *inherent 고유한 *entitled 자격을 받은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conducive 도움이 되는 *dignity 존엄성 *underinvestment 투자 부족 *imperative 필수항목 *resilient 회복력있는 *restrict 제한하다 *lockdown 제재 *adequate 적절한

Read the article and let's think about the questions.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What are three rights at the frontline in the current pandemic? (G1/G5)

2. What does invoking the right to life remind us? (G1/G2)

3. What are all human beings entitled to? (G2/G3)

4. What kind of ability has been weakened by historic underinvestment in health system? (G3/G4)

5. What does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do? (3 things) (G3/G4)

- 1) _____
- 2) _____
- 3) _____

6. What should people do to break the chain of infection? (G4/G5)

7. What do lockdowns give a severe influence on? (G5/G1)

8. Let's think about this: What is the more important in the COVID-19 period between human rights and public safety? (G1/G2)

활동지 2.

코로나19 속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영상시청 후 작성)

	내용 요약 (영어1-2문장으로)	자신의 생각 (이름-생각)	친구들의 피드백
의료인 인권			
아시아인 혐오			
확진자 사생활 침해			
시각장애인 온라인 강의			

02 갤러리워크 (또는 패들렛)을 통한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인권선언 탐구

교수학습법

갤러리워크(Gallery Walk)는 조원들이 토론하고 정리한 조별 학습지를 교실 벽에 죽 둘러 붙여놓고 각 조에서 1명이 큐레이터가 되어 학습지 내용을 설명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관람객이 되어 다른 조의 학습지 내용을 돌아다니며 듣는 활동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별 활동이 어려울 경우 패들렛(Padlet)을 통해 조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조원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들렛은 '온라인 담벼락'으로 다양한 생각을 브레인 스토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갤러리워크는 액션러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과제 해결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이 실제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원이 참석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분석, 종합, 평가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갤러리워크는 학급 전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모둠별로 모은 아이디어를 상호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각자가 아니라 모둠원이 합의한 포스트 위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려면 모둠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모둠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1. 학습지 - 세계인권선언 학습지

활동목적

- 세계인권선언보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인권선언 30조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나 세계인권선언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 세계인권선언을 쉬운 영어 어구로 표현한 선언보드를 소개합니다.
- 5개의 조에 조별로 6개의 조항씩 나누어 줍니다. (총 30개의 조항을 그룹 수에 맞춰서 분배)
- 조원들과 6개의 세계인권선언 조항을 해석해보고 한글로 된 조항을 매칭해 봅니다.

더 알아보기

- (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홍보영상(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
<https://youtu.be/DPFvH6UoIjs>
- (만화) 국가인권위원회, 있는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AniList.do>
- 세계인권선언 패들렛 학습지(최윤경)
<https://padlet.com/gracechoe0103/udhrcovid19>

교사를 위한 팁

- 세계인권선언을 비계(Scaffolding)로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는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편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운동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세계 전 지역이 선언문을 수락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언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다.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인권선언문은 각종 국제 조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 수용되어 있는 바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세계인권선언 - 역사와 조항 별 의미”,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istoryList.do>

- 학생 수준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학습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유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학습지를 작성할 때 채팅창을 활용하여 조원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세계인권선언 홍보영상’이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만화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30개의 조항이 모두 나온 세계인권선언 보드를 한번에 보여주기 보다는 6개 조항씩 쪼개어 조별로 나누어 주어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Gallery Walk 또는 Padlet - 조원들과 의견 교환하기

활동목적

- 코로나19 시대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조원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사례와 세계인권선언의 연관성을 분석해 조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실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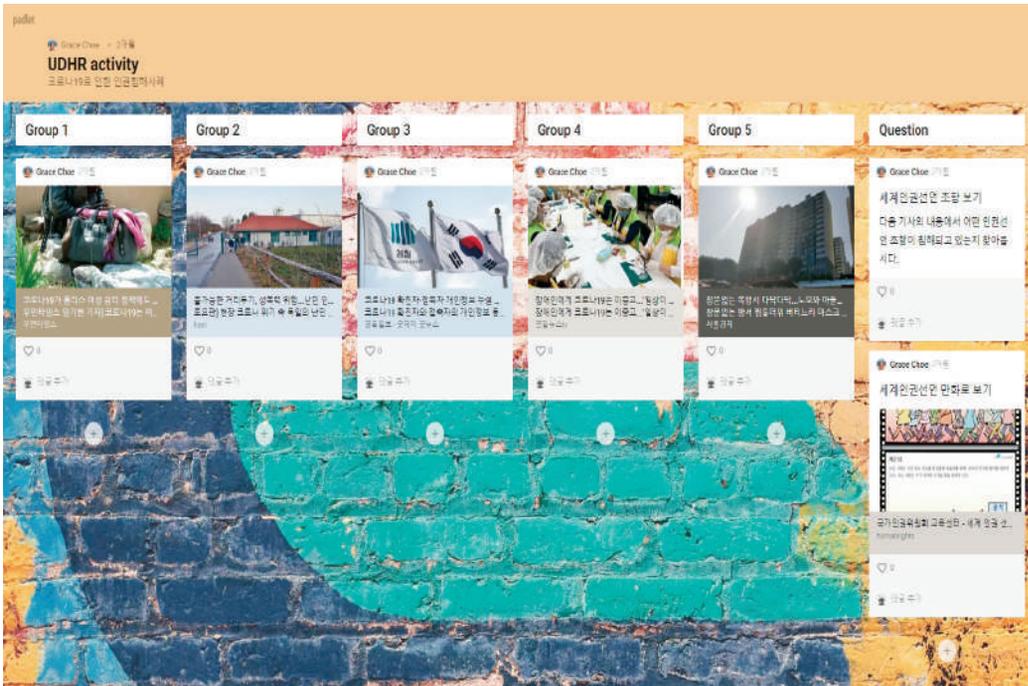
- 패들렛(또는 인쇄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안내합니다.
- 인권침해 사례 기사를 분석하는 프린트(학습지)를 함께 풀어봅니다.
- 인권침해 사례 기사가 세계인권선언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함께 분석하고 조별 활동지에 기록합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원들과 이야기해 보고 갤러리워크나 패들렛을 통해 다른 조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 패들렛 활용예시

- “UDHR Activity -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최윤경)

<https://padlet.com/gracechoe0103/udhrcovid19>



교사를 위한 팁

-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공유드라이브에 올려서 조원들이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합니다.
-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교사가 참여해 6하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지에 의견교환을 유도합니다.
- 자신들이 받은 6개의 세계인권선언 조항 중 어떤 것도 주어진 신문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다른 세계인권선언 조항도 생각해보도록 안내합니다.
- 패들렛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학습지(활동지 2참조)를 제공해 작성하면서, 교사 피드백, 동료피드백을 충분히 받은 뒤 패들렛에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지 1.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We are all born free with equal rights	2.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3. We have a right to live in freedom and safety	4.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slavery	5.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6. We have a right to be treated fairly by the law
7. We have a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8. We have a right to seek justice when our rights are not	9.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unfair imprisonment or exile	10. We have a right to fair public hearings	11. We have a right to b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12. We have a right to privacy & freedom from attacks against our reputation
13. We have a right to be free to travel	14. We have a right to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from persecution	15. We have a right to belong to a country	16. We have a right to get married	17. We have a right to own things	18. We have a right to our own thoughts and religion
19. We have a right to think and say what we want	20. We have a right to gather peacefully	21. We have a right to take part in government and elections	22. We have a right to a social safety net	23. We have a right to work and join trade unions	24. We have a right to rest and play
25. We have a right to health, food, clothing, and housing	26. We have a right to education	27. We have a right to enjoy the arts and sciences	28. We have a right to enjoy a free and fair world	29. We have a responsibility to our community	30. No one can take away our human rights

[출처] Tes Teach with Blendspace, "Simplified Dec of Human Rights",

<https://www.tes.com/lessons/FCTyP5BXviviWg/exploring-the-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Group 1

This is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at parts of the event in your news article violate the given articles of UDHR? Please write the reasons why you think so.

Articles of UDHR	Vocabulary	Korean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고
1. We are all born free with equal rights	equal: 평등한 right: 권리			
7. We have a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protection: 보호 law: 법			
13. We have a right to be free to travel	free: 자유로운 travel: 여행하다			
19. We have a right to think and say what we want				
25. We have a right to health, food, clothing, and housing	clothing: 입을 옷 housing: 주택			
6. We have a right to be treated fairly by the law	treat: 대우하다 fairly: 공정하게			

Group 2

This is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at parts of the event in your news article violate the given articles of UDHR? Please write the reasons why you think so.

Articles of UDHR	Vocabulary	Korean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고
2.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차별			
8. We have a right to seek justice when our rights are not respected	seek: 추구하다 justice: 정의 are not respected: 침해되다			
14. We have a right to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from persecution	protection: 보호, 피난처 persecution: 박해			
20. We have a right to gather peacefully	gather: 집회하다			
26. We have a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교육			
12. We have a right to privacy & freedom from attacks against our reputation	privacy: 사생활 attack: 침해, 공격 reputation: 평판			

Group 3

This is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at parts of the event in your news article violate the given articles of UDHR? Please write the reasons why you think so.

Articles of UDHR	Vocabulary	Korean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고
3. We have a right to live in freedom and safety	freedom: 자유 safety: 안전			
9.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unfair imprisonment or exile	unfair: 불공정한 imprisonment: 투옥, 구금 exile: 추방			
15. We have a right to belong to a country				
21. We have a right to take part in government and elections	take part in: 참여하다 government: 정치, 정부 election: 선거			
27. We have a right to enjoy the arts and sciences	arts: 예술			
18. We have a right to our own thoughts and religion	own: 자신의 thought: 사상 religion: 종교			

Group 4

This is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at parts of the event in your news article violate the given articles of UDHR? Please write the reasons why you think so.

Articles of UDHR	Vocabulary	Korean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고
4.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slavery	slavery: 노예제도			
10. We have a right to fair public hearings	fair: 공평한 public hearings: 공개적인 심문			
16. We have a right to get married				
22. We have a right to a social safety net	social safety net: 사회 안전망, 사회보장			
28. We have a right to enjoy a free and fair world	fair: 공정한			
24. We have a right to rest and play	rest: 휴가를 보내다 play: 놀다			

Group 5

This is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at parts of the event in your news article violate the given articles of UDHR? Please write the reasons why you think so.

Articles of UDHR	Vocabulary	Korean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고
5. We have a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torture: 고문 degrading: 모욕적인 treatment: 대우			
11. We have a right to b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nocent: 무죄인 proven: 증명된 guilty: 유죄인			
17. We have a right to own things	own: 소유하다			
23. We have a right to work and join trade unions	work: 일하다 join: 가입하다 trade union: 노동조합			
29. We have a responsibility to our community	responsibility: 책임, 의무 community: 공동체			
30. No one can take away our human rights	take away: 빼앗다			

Mission Sheet

Group 1

1. 아래 상자 안에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들을 읽고, 영어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의 번호를 Korean 칸에 채워 넣어 주세요.

- ①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④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⑥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Group 2

1. 아래 상자 안에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들을 읽고, 영어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의 번호를 Korean 칸에 채워 넣어 주세요.

-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④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 ⑥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Group 3

1. 아래 상자 안에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들을 읽고, 영어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의 번호를 Korean 칸에 채워 넣어 주세요.

-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④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⑥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Group 4

1. 아래 상자 안에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들을 읽고, 영어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의 번호를 Korean 칸에 채워 넣어 주세요.

- ①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④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⑥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Group 5

1. 아래 상자 안에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들을 읽고, 영어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의 번호를 Korean 칸에 채워 넣어 주세요.

-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 ④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 ⑤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⑥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활동지 2.

1. 코로나19 이후 의료인 인권, 아시아인 혐오, 확진자 사생활 침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를 분석해 봅시다.

기사 일시	
기자명	
사건 개요 (한글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조원들과 각 조에 주어진 세계인권선언 활동지를 가지고 자신이 분석한 기사의 인권침해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했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03

조별 협동활동으로 보석맵 쓰기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의견 교환

교수학습법

보석맵 활동이란 보석 모양으로 종이를 접어 돌려가며 의견을 적어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교환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미래교실네트워크 주변 성혜영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보석맵은 학년과 교과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이 보석맵을 접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활동 및 기록의 양에 따라 A4 또는 B4 사이즈 종이를 모둠별로 한 장씩 준비하고 가로로 놓습니다.
- ② 먼저 1/2로 절반 접습니다.
- ③ 다시 절반을 접어 1/4 사이즈로 만듭니다.
- ④ 그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모서리 부분(펼쳤을 때 종이의 한 가운데였던 지점)을 잡아 꺾어 올려 접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비스듬히 겹쳐진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 ⑤ 다시 열리지 않는 모서리를 잡고 직각 삼각형의 밑변에 수평하게 꺾어내려 접습니다.
- ⑥ 마지막으로 아래로 비쳐나온 직각 삼각형의 모서리를 반대로 꺾어 올려 접습니다.
- ⑦ 펼치면 아래와 같이 보석맵이 완성됩니다.
- ⑧ 직각 삼각형 상태에서 몇 번을 꺾어 접느냐에 따라 보석맵의 칸 수가 달라지니 활동에 따라 접는 횟수를 달리하시면 됩니다.

1. 학습지-보석맵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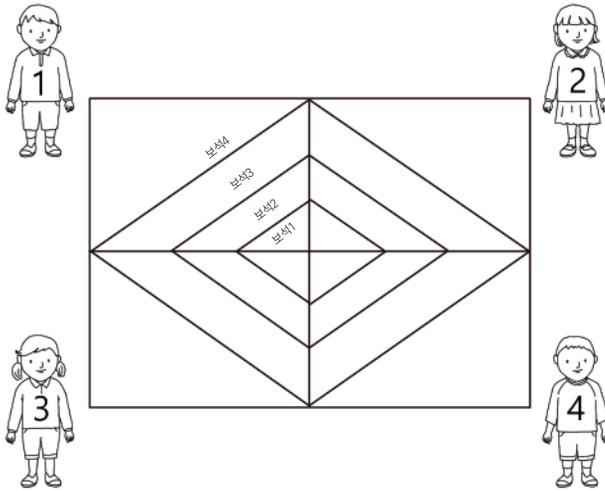
활동목적

조원들과 함께 보석맵을 활용해 인권과 안전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가장 안쪽(보석1)에는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씁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원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별명을 쓰기도 합니다.

- 보석맵을 90도 옆으로 돌리고 다음 칸(보석2)에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권은 무엇인지 씁니다.
- 보석맵을 90도 옆으로 한번 더 돌리고 옆 친구가 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 밑에 (보석3)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이유를 추측해 씁니다.
- 보석맵을 90도 옆으로 한번 더 돌리고 옆 친구가 쓴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이유' 밑에(보석4) 그 인권과 상충될 것으로 생각되는 안전의 이슈를 씁니다.
- 조원들이 다 쓰면 자신이 쓴 것과 친구들이 쓴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출처] 성혜영 선생님(부산 신정중 국어)과 (사)미래교실네트워크의 수업자료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이 보석맵 활동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의견을 달고, 나 역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읽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의견을 쓰는 활동입니다.)
- 코로나19의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학습플랫폼에 보석맵 파일을 올려놓고 글을 쓰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활동지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6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

최윤경

06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

학습목표

- 마사 누스바움의 글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혐오와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미디어에 나타난 혐오와 차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협력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친구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키워드

- 코로나19, 혐오, 차별,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 보편적인 핵심 가치 (환대, 연대, 평화, 시민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국어, 영어, 사회, 미술

활동명	수업의 흐름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거꾸로 교실을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 누스바움의 글에 대해 디딤영상을 보고 활동지 풀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본문과 한글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내용을 비교하면서 코로나 19시대의 혐오와 차별의 원인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차시 블럭수업 (10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에 소개된 기사를 분석하고 마사 누스바움의 책 내용과 비교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팬데믹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기 		
ICT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으로 코로나19 시대의 혐오와 차별의 원인 및 해결방안 탐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렛으로 혐오, 차별관련 미디어 기사를 비교하는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에 등장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기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요약할 수 있다. • 코로나19시대 혐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할 수 있다. • 코로나19 시대 혐오극복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 상에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차시 (각5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렛으로 혐오와 차별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탐구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로 혐오극복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캠페인 활동하기, 배움중심 소감문 쓰기 		

01 거꾸로 교실을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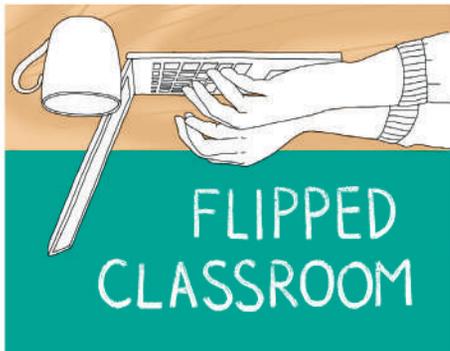
교수학습법

Flipped Classroom은 한국에서는 ‘거꾸로 수업 (교실)’으로 불리며 전형적인 학습 방법과는 정반대인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기 자신의 계획에 맞춰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2007년, 미국 고등학교의 화학교사 두 명이 수업 결손 학생을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수업 장면을 찍어서 제공했던 것에서 출발한 거꾸로 교실의 아이디어는 수업할 때 부족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사전 학습한 뒤 동영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보고, 학교에서는 질의응답, 토론, 실험 등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교실의 운영되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사가 수업 내용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한 시간의 수업 내용 중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간추려 만듭니다.
- ② 학생은 수업 전에 미리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해도 됩니다.
- ③ 수업은 참여식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핵심 내용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활동, 질문 및 토론, 의견 발표 등 다양한 모둠 활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합니다. 과목의 종류에 따라 이런 심화된 학습은 다양합니다.
- ④ 평가와 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치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거꾸로 교실이란 무엇인가?”, <https://if-blog.tistory.com/6527>



1. 영상 - Flipped Classroom(거꾸로 수업) 동영상

활동목적

영어로 된 짧은 글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집단협조의 현상에 대한 마샤 누스바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 대신 수업 전 혹은 수업 시작 때에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수업 동영상을 미리 보면서 이미 나누어준(혹은 구글클래스룸에 사본파일로 올려놓은) 자신의 활동지에 조원들과 필기를 합니다.
- 그리고 본문 퀴즈에서 자기 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함께 문제를 풀니다.
- 수업시간에는 정보차 활동에 의해 본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문제 풀 학생들과 이야기해 주어진 모든 문제를 구글 클래스룸과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해결합니다.



[출처] 구글(Google), Google Classroom 소개,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classroom/?modal_active=none



[출처] 구글(Google), Google Drive 소개, <https://www.google.co.kr/drive/apps.html>

교사를 위한 팁

- 학생 수준에 따라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별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글 공유드라이브를 활용해 본문 이해를 위한 문제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 거꾸로 수업 동영상을 수업 전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미리 올려놓고 수업 시간 내에 내용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미리 보고 연습하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내용 이해문제에 대해 모든 조가 함께 의견을 교환하도록 서로 문제를 발표하고 교사는 최종적으로 답을 공지하도록 합니다.

2. 토론 - 미디어에 소개된 기사 분석하기

활동목적

영어본문과 한글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내용을 비교하면서 코로나19시대의 혐오와 차별의 원인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학생들은 영어본문과 같은 저자의 인터뷰 기사를 한글로 읽습니다.
- 기사내용을 분석하고 내용이해 문제를 풀어봅니다.
- 영어 본문의 출처(마사 누스바움의 'Poetic Justice')와 글(『어크로스 페미니즘: 세계 여성 지성과의 대화』)을 비교해 보고 공통되는 의견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혐오 이슈에 대한 마사 누스바움 인터뷰’(경향신문)에서도 인터뷰 내용 확인가능)
- 코로나19 시대 혐오와 차별은 왜 나타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교사를 위한 팁

- 경향신문에 나온 ‘세계석학과의 대화’ 인터뷰 시리즈 중 하나임을 소개합니다.
- 학생들이 영어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 문학적 상상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조원들과 원활한 토론이 되도록 교사는 면밀히 관찰하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반 전체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

마사 누스바움 (Martha C. Nussbaum) 소개

194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로서 뉴욕 대학교에서 연극학과 서양고전학으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전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와 고전학과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석좌교수가 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 브라운 대학교 철학과로 옮겨 역시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로스쿨, 신학교에서 법학/윤리학 석좌교수로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 그는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미국 철학회장을 역임했고, 1988년에 미국학술원 회원으로, 2008년에 영국학술원 해외회원으로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과 함께 인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님 촘스키, 움베르토 에코 등과 함께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에 두 차례(2005, 2008년)나 뽑히기도 한 그는,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최로 열리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통해 '감정과 정치문화'라는 주제로 서울대, 고려대, 계명대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저서로는 '사랑의 지식(Love's Knowledge)'(1990), '시적 정의(Poetic Justice)'(1996),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For Love of Country)'(1996), '인간다움의 함양(Cultivating Humanity)'(1997), '성과 사회 정의(Sex and Social Justice)'(1998), '선의 취약성(The Fragility of Goodness)'(2001),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은둔(Hiding from Humanity)'(2004), '동물 권리(Animal Rights)'(2004),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Not for Profit)'(2010), '능력 창조(Creating Capabilities)'(2011) 등 다수가 있다.

[출처] 교보문고, 작가 & 작품, <http://www.kyobobook.co.kr/author/info>

활동지 1.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정의' (디딤영상으로 해설 올리기-교사 자체 제작하기)

Group hatred and the oppression of groups is very often based on a failure to individualize. Racism, sexism, and many other forms of pernicious prejudice frequently ground themselves in ❶ the attribution of negative characteristics to the entire group. Sometimes — as in the case of the Nazi depiction of Jews, as in the case of much of the “thinking” characteristic of American racism— this is carried to the extreme of portraying the group as altogether subhuman, as vermin, insects, even as “cargo,” and attitude that cannot survive the individualized knowledge of a member or members of that group.

Literary understanding, I would therefore argue, promotes habits of mind that lead toward social equality in that they contribute to ❷ the dismantling of the stereotypes that support group hatred. For this purpose, in principle any literary work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I have discussed in chapter 1 would be valuable: in reading Dickens, we learn habits of “fancying” that we can then apply to other groups that come before us, whether or not those groups are depicted in the novels we have read. But ❸ it is also very valuable to extend this literary understanding by seeking out literary experiences in which we do identify sympathetically with individual members of the marginalized or oppressed groups within our society, learning both to see the world, for a time, through their eyes and then reflecting as spectators on the meaning of what we have seen. If one of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the novel to public rationality is its depic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hared human aspirations and concrete social circumstances, it seems reasonable that ❹ we should seek novels that depic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groups with whom we live and whom we want to understand, cultivating the habit of seeing the fulfillment or frustration of their aspirations and desires within a social world that may be characterized by institutional inequalities.

[출처] Poetic Justice by Martha C. Nussbaum, Copyright © 1995 by Martha C. Nussbaum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Beacon Press, Boston Massachusetts

1. ❶ 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2. ❷ 의 결과로 '문학적 이해(Literary understanding)'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③ 을 해석해보자. 우리 사회에 ‘Marginalized or oppressed groups’은 누가 있을까?

Blank response area for question 3.

4. ④ 의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며 이해하길 원하는 그룹의 특별한 환경을 묘사하는 소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Blank response area for question 4.

활동지 1 예시답안

1. Portraying the group as altogether subhuman, as vermin, insects, even as “cargo,”
2. Promotes habits of mind that lead toward social equality
3.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4. Cultivating the habit of seeing the fulfillment or frustration of their aspirations and desires within a social world that may be characterized by institutional inequalities

활동지 2.

조별 토론자료 (디딤영상과 연계한 수업)

왜 인간은 타인을 혐오할까요?

두 가지 차원의 혐오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모든 사회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몸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노폐물에 대해 느끼는 혐오죠. 대소변, 피, 콧물 등 우리의 동물성에 대한 거부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원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정신은 인간의 동물성에 '오염된 상태'라는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시체는 분명 혐오스럽죠.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 혐오 반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꼭 위험 요소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오와 두려움이 다르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독버섯을 예로 들면, 매우 위험하지만 혐오스럽지는 않죠. 반면에 바퀴벌레는 살균해서 먹을 수 있는 값싼 단백질원인데도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혐오가 자리합니다. [인간 심리가 반영된] 문화적 차원의 혐오죠. 저는 이것을 '투사혐오(projective disgust)'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부패, 냄새, 분비물 같은 역겨운 특성을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에 투사함으로써 혐오를 그들을 종속시킬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혐오는 대체로 약한 집단을 향합니다. 그들을 동물적이라고 묘사하죠. "오! 이걸 저들한테만 있지 나한테는 없어. 동물적인 성적 취향은 그들한테나 있지 나한테는 없다. 고약한 냄새도 그들에게서나 나지 나에게선 안 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미국 백인들은 흑인들을 향해 냄새가 고약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동물 취급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비슷비슷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런 전략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동물성을 부정하기. 둘째, 약한 집단을 종속시키기. 이렇게 흑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인간의 동물성을 부정하는 거죠. 투사 혐오는 그 방식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미국 백인들은 흑인의 신체에 대해 육식동물 가운데 힘센 포식자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이런 혐오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죠. 반면 인도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에게 투영되는 이미지는 이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투영되는 혐오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약하고 처연한 동물의 이미지가 투사됩니다.

[출처] 안희경, 『어크로스 페미니즘: 세계 여성 지성과의 대화』, 글항아리, 2017, pp. 133~134.

1. 혐오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2. 혐오가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토론해보기

3. 디딤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던 영어본문과 위의 인터뷰 기사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4.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는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기



02

ICT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으로 코로나19 시대의 혐오와 차별의 원인 및 해결방안 탐구

교수학습법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자체는 학습법이 아니지만, 21세기의 학습과 교육에서 ICT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패들렛(Padlet), 미리캔버스(Miricanvas), 망고보드(Mangoboard)등이 있습니다. 패들렛은 온라인 담벼락으로 다양한 미디어 자료 링크를 걸어 놓고 브레인 스토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패들렛에서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 화살표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리캔버스, 망고보드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도록 포맷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제작한 혐오 극복 캠페인 포스터는 SNS에 게시해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1. 패들렛 - 혐오, 차별과 관련된 미디어 기사 비교

활동목적

미디어에 등장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기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교사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인종혐오현상을 지도로 만든 웹사이트를 학생들과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통해 공유합니다. (<https://racismiscontagious.com/>)
-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과 교사는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 패들렛을 공유하고 선반(Shelf) 기능을 활용해 조별로 혐오와 관련되어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개의 미디어 기사를 학생들에게 링크를 걸어 안내합니다.
- 학생들은 각자 구글클래스룸에 탑재된 학습지에 두 개의 기사를 분석하고 두 기사의 차이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쓰도록 합니다.
- 패들렛에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읽으며 추가 의견을 밑에 쓰도록 합니다.
- 교사가 제시한 혐오의 영역(입국금지, 지역, 성소수자, 종교, 이주민 등) 외에 다른 혐오 관련 기사가 있다면 패들렛에 추가로 올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합니다.



[패들렛 활용 예시] <https://padlet.com/gracechoe0103/hatevirus1> (최윤경)



[출처] Racism is Contagious, <https://racismiscontagious.com/>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 마다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모두의 견해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치적인 문제의 경우 한국의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에 의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 다른 입장의 기사에 접근할 때 단어 사용의 차이부터 보도록 안내하며 단어의 뉘앙스가 줄 수 있는 차이를 다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인용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들 간에 논쟁이 가열될 경우 교사는 토론을 통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2. 패들렛 - 혐오와 차별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탐구

활동목적

코로나19시대 혐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조사했던 기사들 중에 하나를 골라 조별로 패들렛의 캔버스 포맷을 활용해 원인을 함께 써보도록 합니다.
- 조사했던 기사들의 댓글이 있다면 댓글을 읽고 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 원인과 관련된 뉴스 자료가 있다면 함께 링크를 걸어 봅니다.
- 댓글 기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해보고 관련된 기사 링크가 있다면 역시 링크를 걸어봅니다.
- 다른 조원들과 패들렛 링크를 공유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 봅니다.

패들렛 활용 예시

<https://padlet.com/gracechoe0103/hateisvirus2>
(최윤경)



교사를 위한 팁

- 모든 현상에서 표면적 원인과 심층적 원인이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브레인 스토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모인 그룹일 경우 교사가 패들렛에 함께 들어가 다양한 원인을 언급해 주는 등 토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함께 발견한 해결방안 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활동과 연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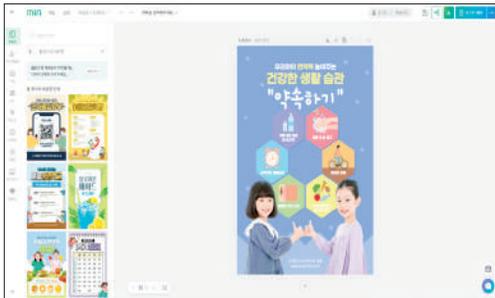
3.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 혐오극복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활동목적

코로나19 시대 혐오극복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 상에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학생들에게 [활동2]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홍보할 '코로나19시대 혐오극복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 포스터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구글 공유드라이브에 올려 조원들과 함께 계획서를 작업합니다.
- 미리캔버스, 망고보드와 같은 온라인 포스터 만들기 플랫폼을 안내하고 학생들과 사용방법을 공유합니다.
- 온라인 포스터를 다 만든 조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공유하고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안내합니다.
-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 활동이 끝나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포함하여 구글 설문지를 통해 배움일지를 써서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https://www.miricanvas.com/templates>



[출처] 망고보드, <https://www.mangoboard.net/>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써야 포스터를 만들기 쉬움을 안내합니다.
-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조원들이 계획서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교사나 학급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혐오와 차별을 불러 일으킬 만한 언어사용은 없는지 반드시 상호검토(peer-review), 교사검토(teacher-review)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 활동이 끝나고 SNS에 업로드 한 뒤 배움일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지 1.

코로나19 시대 세계의 혐오와 차별: 두 기사의 입장을 비교하고 사용된 언어의 차이가 기사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기사1	기사2
기사 제목		
기자 이름		
신문사		
업로드 날짜		
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 누가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 누가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기사 1, 2의 차이점		
차이점이 주는 시사점		

활동지 2.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 문제분석 - 원인과 해결책 brainstorming 해보기

활동지 3.

코로나19 시대 혐오극복 포스터 계획서

Group #__

제목 _____

1. 현상과 원인 (뉴스 기사 요약도 가능)

Blank area for writ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auses.

2. 조원들의 역할

Blank area for describing the roles of team members.

3. 포스터 개요 및 콘티

- 1.
- 2.
- 3.
- 4.
- 5.

4. 활용 플랫폼 안내

망고보드 <https://www.mangoboard.net/>

미리캔버스 <https://www.miricanvas.com/>

활동지 4.

포스터 자기점검(Self-review) 및 상호점검(Peer-review) 표

번호	문항	자기점검					상호점검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상과 원인을 적절한 그림과 단어로 잘 나타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	포스터의 제목과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3	포스터의 제목이 매력적이다.	<input type="checkbox"/>									
4	조원들과 서로 협동해서 함께 작업했다.	<input type="checkbox"/>									
5	사용한 단어 중에 혐오나 차별, 편견이 반영된 단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6	포스터 내용이 나 구성이 창의적이다.	<input type="checkbox"/>									
7	캠페인을 통한 해결방안이 실행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8	심층적 원인 분석과 깊이있는 해결방안이 돋보인다.	<input type="checkbox"/>									

활동지 5. (Google Survey로 제작)

코로나19 시대 혐오극복 포스터 만들기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봅시다.

포스터 제목	
이번 온라인 캠페인 활동에서 내가 배운 것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소감 및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제안포함)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 (중등)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ISBN 979-11-87819-23-3

ISBN 979-11-87819-21-9 (세트)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실

연구·집필 양철진 (경기 송우중학교 교사)
최인선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사)
최윤경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감수 김경숙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경원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제작대행 디자인 프리즘
전화) 02-2264-1728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전송) 02-774-3957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Photo cover credit: ©Tagxedo

해당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해당 국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에 포함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본문에 수록된 사진 등은 모두 출처를 확인해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출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저작권 관련 정보를 주시면 확인 후 표기하겠습니다.